

2023년 2월 통권 제34호

한국문화기술

The Journal of Korea Culture Technology

차례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 연구 - 대표적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손창우(경희대학교), 한경훈(경희대학교)	2
영화 <굿 윌 헌팅>의 이미지 경로 - 시공간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김영선(단국대학교)	20

편집자의 말 • 1

심사 규정 및 투고 규정 • 34

논문 투고 지침 • 36

논문 작성 지침 • 37

연구윤리 규정 • 41

논문 수정 대조 확인서 양식 • 44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혁 • 45

『한국문화기술』 제34호 심사 경위 • 64

『한국문화기술』 제35호 원고 모집 • 65

편집위원 명단 • 67

편집자의 말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람직한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04년 창립한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한국문화기술』은 ‘문화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왔습니다. 2021년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서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이 선정되어 수행하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1+3 예술통합’으로 이루어질 각 예술(혹은 예술 장르)의 통합, 융·복합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인 예술과 공동체, 생태, 기술 분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문화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한국문화기술』은 제34호에 귀중한 옥고를 투고해주신 분들의 학문적 열망에 박수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이번 호에 논문을 두 편밖에 못 실어 아쉽고 죄송합니다. 투고된 논문은 더 있었으나 학회 기준에 못 미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발하여 더 많은 논문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창우, 한경훈의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 연구 - 대표적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대두된 온라인 문화 속에서 국내 CCM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대표적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 지평을 넓혔습니다. 김영선의 「영화 <굿 윌 헌팅>의 이미지 경로 -시공간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는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주인공 윌이 겪는 성장의 서사를 경로(path)의 관점으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했습니다. 예술과 학문 융합의 관점에서 사건을 도식화했고, 인물의 심리를 공간의 미장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기술』은 제34호를 발행하며 문학과 문화예술 그리고 더 나아가 폭넓은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발굴해내고자 하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적 가치를 발굴하여 ‘문화기술’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창출하는 양질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을 투고해주신 많은 연구자분들과 엄정한 논문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 연구

- 대표적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ontents in Korea and abroad using YouTube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presentative overseas cases and domestic cases

손창우(경희대학교)

한경훈(경희대학교)

차례

1. 들어가는 말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1) CCM 콘텐츠의 개념과 가치
- 2)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유형
 - (1) 워십뮤직 콘텐츠
 -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 3) 비교 분석의 기준
 - (1) 콘텐츠의 다양성
 - (2) 콘텐츠의 접근성

3.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국내외 현황

- 1) 국내 CCM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 (1) 워십뮤직 콘텐츠
 -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 2) 해외 CCM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 (1) 워십뮤직 콘텐츠
 -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4. 국내외 사례의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 2) 효과적인 접근성 필요

5. 나가는 글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대두된 온라인 문화 속에서 국내 CCM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온라인 문화를 수용하고 있어 연구의 범위를 유튜브 내 CCM 콘텐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접근성’에 분석 기준을 두고, 해외와 국내를 대표할 만한 유튜브 채널 3개를 선정 후, 해당 채널의 콘텐츠 중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유형, ‘위십뮤직(Worship Music) 콘텐츠’와 ‘위십뮤직 튜토리얼(Worship Music Tutorial) 콘텐츠’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CCM 유튜브 콘텐츠는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촬영 장소 및 인원 편성, 카메라 각도나 워킹을 달리하는 등의 다채로운 연출방식 활용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진사례들을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 CCM 콘텐츠의 경우 비기독교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기독교 대중가수와 협연 등 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들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사회적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CCM 콘텐츠가 대중음악 콘텐츠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대중 음악, 대중 문화, 유튜브 음악 콘텐츠, 기독교, 기독교 음악

1.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중문화에서 대세를 이루어감으로써 장르는 해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향, 헤리티지, 비와이 등 대중음악 가수들의 CCM 활동이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인터넷 이용 시간이 평균 17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튜브 이용률 역시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예컨대, 기독교 기반 콘텐츠 팀 위러브 크리에이

1) 박옥주. <소향, 헤리티지, 비와이... CCM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어디까지?>.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0190\(2022.03.29\).](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0190(2022.03.29).)

티브 팀(Welove Creave Team)이 발표한 싱글 앨범 ‘입레’는 발매 열흘 만에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하여 음악 순위 15위에 올랐으며, 대중음악 음원 사이트 멜론의 최신 24 Hits 일반 차트에 진입하였다.³⁾ 그리고 현재 유튜브 조회 수는 약 4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콘텐츠의 이용은 단순한 매체의 선호도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여겨질 만큼 현시대 미디어의 구조가 유튜브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흐름으로 인해 온라인 문화 속에서 효과적인 CCM 콘텐츠 개발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CCM 콘텐츠는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서 더욱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 보이며,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CCM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유튜브 매체의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명해보고자 하며, 이를 해외의 선진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국내 CCM 콘텐츠의 한계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CCM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CCM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게재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 세 곳을 선정한다. 유튜브 채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성’에 관한 척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채널이 보유한 구독자의 수, 둘째, 최근 1년간 제작되고 게재된 콘텐츠의 수, 그리고 셋째, 게재된 콘텐츠의 조회 수에 근거하여 상위 세 곳을 선정한다.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를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세 곳을 선정하여 국내외의 콘텐츠를 비교 분석한 뒤, 국내 CCM 유튜브 채널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우, 33만 명의 구독자와 168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1,294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한 ‘마커스워십(Markers Worship, 이하 한글로 표기)’, 18만 명의 구독자와 255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1,364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한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Anointing Music & Ministry, 이하 한글로 표기)’, 18만 명의 구독자와 69개의

2) 허주희. <과기정통부,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8\(2022.04.01\).](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8(2022.04.01).)

3) 안규영. <CCM ‘입레’ 인기... 예배의 좋은 전통 기억했으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651&code=23111314&cp=nv\(2022.03.29\).](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651&code=23111314&cp=nv(2022.03.29).)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그리고 570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Welove Creative Team, 이하 한글로 표기)’ 채널을 국내 CCM 유튜브 콘텐츠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해외의 경우, 805만 명의 구독자와 34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4.7억 회 조회 수를 기록한 ‘힐송위십(Hillsong Worship, 이하 한글로 표기)’, 402만 명의 구독자와 55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2.3억 회 조회 수를 기록한 ‘엘리베이션 위십(Elevation Worship, 이하 한글로 표기)’, 402만 명의 구독자와 137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그리고 1.5억 회 조회 수를 기록한 ‘벤틀뮤직(Bethel Music, 이하 한글로 표기)’ 채널을 국외 CCM 유튜브 콘텐츠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CCM 콘텐츠를 활용한 대표적 채널

	채널명	구독자 수	최근 1년간 콘텐츠 업로드 수	조회 수
국내	마커스위십	약 33만 명	168개	약 1,294만 회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약 18만 명	255개	약 1,364만 회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약 18만 명	69개	약 570만 회
해외	힐송위십	약 805만 명	34개	약 4.7억 회
	벤틀뮤직	약 402만 명	137개	약 1.5억 회
	엘리베이션 위십	약 402만 명	55개	약 2.3억 회

다음으로,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CCM 콘텐츠의 개념과 가치를 고찰하여 본다. 그리고 연구 조사 대상인 CCM 유튜브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 파악해 보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조사된 사례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해보기 위해서는 분석 기준이 필요하므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CCM 콘텐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콘텐츠의

다양성' 여부이다. CCM 콘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위십뮤직(Worship Music, 이하 한글로 표기)' 이라 할 수 있다. 위십뮤직이란 기독교 현대 음악의 한 부류로서,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라고도 불리운다.⁴⁾ 위십뮤직은 기독교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며, 성경은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에 관해 수금과 열 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는 새롭고 다양하며, 기술적으로 뛰어난 음악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CCM 콘텐츠의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유튜브 CCM 콘텐츠 분석의 첫 번째 기준을 '콘텐츠의 다양성' 여부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콘텐츠의 접근성'에 관한 여부이다. 성경은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인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복음이 먼저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⁶⁾ 이는 CCM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기 어려운 CCM 콘텐츠는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거 기독교 음악을 칭할 때 복음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 '가스펠송(Gospel Song)' 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CM 콘텐츠 분석의 두 번째 기준을 '콘텐츠의 접근성' 여부로 삼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분석 기준을 준거로 하여 국내외의 대표적인 CCM 유튜브 콘텐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장단점들을 바탕으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CCM 콘텐츠의 개념과 가치

CCM이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줄임말이며, 동시대에 선행되고 있는 대중적인 형식의 기독교 음악을 의미한다.⁷⁾ 다시 말해,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기독교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즉 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의지적 측

4) 네이버지식백과. <Worship Music>.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9187&cid=50762&categoryId=51368>(2022.04.06.)

5) YouVersion. <https://www.bible.com/ko/bible/88/PSA.33.KRV>(2022.04.12)

6) YouVersion. <https://www.bible.com/ko/bible/88/ROM.10.KRV>(2022.04.12)

7) 김현준, 「유튜브 CCM콘텐츠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9쪽.

면을 조직화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적 체계이다.⁸⁾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s)는 문화적 요소를 함유한 대중 매체, 혹은 문화상품을 의미하는데, 영상매체, 게임, 혹은 캐릭터나 음악 등의 활용 도구가 결합되어진 넓은 개념으로 규정된다.⁹⁾ 이를 정리하면, CCM 콘텐츠란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기독교 음악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한 대중 매체, 문화상품을 말한다.

CCM 콘텐츠는 문화콘텐츠의 기능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CCM 콘텐츠는 비기독교인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적절한 예시로 들 수 있겠다.¹⁰⁾ 이처럼 CCM 콘텐츠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유형

(1) 워십뮤직 콘텐츠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대표적 유형으로 워십뮤직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워십뮤직이란 교회의 공동체적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가리킨다.¹¹⁾ 워십뮤직 콘텐츠는 예배 시 드리는 집단 찬양의 형태 즉, 전문 워십뮤직을 영상에 담아 콘텐츠화한 것을 의미한다. 교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중요하므로 워십뮤직은 모든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주로 워십뮤직을 이루어내는 것은 각 교회의 찬양팀 또는 전문 찬양사역 단체이다. 찬양팀은 예배 시 찬양을 반주함으로써 모든 회중이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¹³⁾ 그리고 찬양팀과 회중을 인도하는 찬양인도자는 음악성을 갖추수록 팀

8) 장동민 외 3인, 『개혁주의 문화철학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8, 21쪽.

9) 원신애, 「문화콘텐츠의 도전과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가능성」, 『복음과 교육』 제11집 0호,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2012, 96~100쪽.

10) 앞의 글.

11) 앞의 글.

12) 하재송,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과 개혁주의 예배음악의 원리」, 『성경과 신학』, 제93권 0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20, 161쪽

13) 정창은,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갱신 방안 연구 -루터·칼빈·웨슬리의 회중찬송을 중심으로-」, 『기독교음

원들과 회중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다.¹⁴⁾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교하게¹⁵⁾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공교히’ 라는 용어는 영어 성경에서 ‘skillfully(솜씨 있게, 능숙하게)’ 로 기술되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워십뮤직 튜토리얼(Worship Music Tutorial) 콘텐츠는 교회의 찬양팀을 이루는 보컬, 악기 연주자 등 워십뮤직을 준비하는 데 보다 전문적인 봉사자로 교육해주는 교육의 영상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3) 비교 분석의 기준

(1) 콘텐츠의 다양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적 요소는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음악적 요소도 각각 다르다. 특히, 비기독교인의 경우, 대중음악이 지닌 음향적·음악 장르적 취향이 분명히 다르므로, 워십뮤직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워십뮤직이 비기독교인의 호감만을 위해 변화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교회와 찬양 사역 단체는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음악적 트렌드를 적절히 수용하여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콘텐츠의 다양성은 문화콘텐츠가 어떠한 종류로 공급되고 소비되는지를 드러내는 개념으로, 다양성에는 양적 다양성과 질적 다양성이 있다.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공급·소비되는지를 뜻하는 ‘양적 다양성’,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양은 적을지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콘텐츠가 공급·소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질적 다양성’ 이 있다.¹⁶⁾ 유튜브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전파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가장 주요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¹⁷⁾

악·문화』, 제3권 0호, 한국기독교음악학회, 2018, 90-91쪽.
 14) 이규낙, 「한국CCM(현대교회음악) 개선방안 연구 - 교회 찬양팀 참여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5쪽.
 15) YouVersion. [https://www.bible.com/ko/bible/88/PSA.33.KRV\(2022.04.14\)](https://www.bible.com/ko/bible/88/PSA.33.KRV(2022.04.14))
 16) 김수연, 「온라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쪽.
 17) 오세정,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 유형 연구: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주관성 연구』,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제55권, 2021, 48쪽.

이러한 다양성의 측면을 준거로 하여 CCM 콘텐츠를 분석할 때, 연구의 조사 대상인 유튜브 채널들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콘텐츠의 종류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콘텐츠의 접근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M 콘텐츠는 대중들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중시하여 CCM 콘텐츠를 광범위한 문화적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각 채널에 대한 음악 콘텐츠의 접근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콘텐츠 제작 환경과 제작 방식의 대중성 여부를 중심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들의 유형과 분석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국내외 유튜브 채널 선정과 연구 내용

콘텐츠 유형 분류	1. 워십뮤직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유형 분류	1. 콘텐츠의 다양성 2. 콘텐츠의 접근성

3.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CCM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1) 워십뮤직 콘텐츠

① 마커스워십

국내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커스워십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조사 시점에서 5개월 전 업로드된 ‘MARKERS 마커스 목요일예배 [21.09.30] 예배 실황(Official), [KOR/SUB]’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MARKERS 마커스 목요일예배 [22.03.24], 예배 실황(Official)’ 까지 5개월간 71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여기에

는 찬양부터 설교까지 예배 전체의 영상이 담긴 예배 실황에 대한 콘텐츠가 28개가 업로드되었으며, 워십뮤직만을 영상에 담은 콘텐츠는 43개가 업로드되어있다. 이 43개의 워십뮤직 콘텐츠 평균 조회 수는 약 4만 회 정도이며, 워십뮤직 콘텐츠가 촬영된 장소는 모두 동일한 장소로써, 예배 실황 때에도 같은 장소에서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예배당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대부분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던 5년 전, 그리고 현재 콘텐츠는 ‘워십뮤직’, ‘예배 실황’, ‘악기 연주영상’ 등의 3가지 유형의 콘텐츠로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며, 주로 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5개월 전 업로드된 ‘11 시편의 노래 Song of Psalms(Official Lyrics), 예배자의 노래 3집’의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믿음이 없이는(Without Faith), Anointing CLIP, 22.02.03’ 영상까지 5개월간 74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매주 업로드되는 22개의 예배 실황 콘텐츠가 있고, 46개의 워십뮤직 콘텐츠가 있으며, 평균 조회 수는 약 1.5만 회이다. 5개월 전 발매된 ‘예배자의 노래 3집’ 앨범에 수록된 12곡에 대한 콘텐츠도 업로드되어있으며, 그중 한 곡인 ‘시편의 노래’의 경우, 뮤직비디오 형식의 콘텐츠로 업로드되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 찾아오는 공허함을 교회와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영상에 담고 있으며, 노래가 흐르면서 가사가 전환되는 ‘오피셜 리릭스(Official Lyrics)’ 형식의 콘텐츠가 13개 업로드되어 노래에 보컬이 들어가지 않고 악기만 연주되는 ‘기악(Instrumental)’ 콘텐츠가 10개, 라이브 영상을 담은 콘텐츠가 18개 업로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기악 콘텐츠의 음악은 피아노 연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10개의 콘텐츠에 5명의 연주자가 참여하였다. 18개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에는 교회의 예배당과 스튜디오에서 각각 10개, 8개의 콘텐츠를 촬영하여 진행되었다.

③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유튜브 채널에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5개월 전 업로드된 ‘WELOVE, 영원한 나의 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WELOVE, 바다로 가자’의 영상까지 5개월간 41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었다. 41개의 콘텐츠 중 워십뮤직 콘텐츠는 28개이며, 평균 조회 수는 22만 회이었다. 그리고 워십뮤직 콘텐츠 중 라이브 영상 콘텐츠는 15개 업로드되었으며, 예배당, 라이브홀, 야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전,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Christmas Spectacular)’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콘텐츠가 6개 업로드되

었고, 2개월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된 프로젝트 콘텐츠로, 8개의 영상이, 그 외 뮤직비디오 형식의 콘텐츠가 4개 업로드되어있다. 이 채널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는 5개월 동안 3명의 국내 대중가요 가수인 ‘제아’, ‘아년딜라이트’, ‘홍이삭’ 등이 콘텐츠에 참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워십뮤직 ‘기대’의 원작자 ‘천강수’, ‘심형진’도 콘텐츠에서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1년 전에는 ‘뽀키’라는 가수도 콘텐츠에 참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① 마커스워십

마커스워십 채널은 5년간 피아노, 베이스 기타, 일렉기타, 드럼 등 워십뮤직의 악기 연주 영상을 업로드하였으며, 연주영상 콘텐츠는 예배 실황 때 각 악기의 연주자를 촬영한 영상 콘텐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영상 콘텐츠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튜토리얼 콘텐츠는 업로드되어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마커스워십 채널에서는 튜토리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채널에서 ‘심종호의 예배연습실’이라는 별도의 채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심종호의 예배연습실’은 마커스워십의 예배인도자 ‘심종호’가 운영하는 채널로써, 약 6천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 63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으며, 예배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콘텐츠 및 보컬, 어쿠스틱기타의 연습방법, 기타에 관한 이야기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연습 콘텐츠는 마커스 워십에서 주로 불리우는 워십뮤직을 어떻게 노래할지, 그리고 기타를 어떻게 연주할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보컬 튜토리얼에 관한 31개의 콘텐츠와 기타 튜토리얼 콘텐츠 18개가 업로드되어있다.

②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채널에서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는 ‘어노인팅 하우 투 플레이(Anointing How To Play)’ 재생목록에 업로드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앨범 수록곡의 악기별 연주 영상을 다룬 64개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베이스 기타에 관한 콘텐츠 10개, 일렉 기타 9개, 어쿠스틱 기타 7개, 드럼 16개, 메인 건반 9개, 신디사이저 13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생목록에는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는 팀원들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어노인팅 팀의 기타리스트 ‘정선권’이 운영하는 ‘어노인팅 기타리스트 정선권’ 채널은 조사시점에서 구독자 약 6천 명이었으며, 어노인팅 팀의 건반 연주자 ‘한경숙, 서진실’이 운영하는 ‘진실한

피아노(구독자 약 3천 명)’ 등의 채널이 있다. 각 채널에서는 위십뮤직에서 필요한 튜토리얼 영상을 주로 제공하며, 어노인팅의 보컬 ‘이주희’는 채널의 ‘예배 곡 찬양 화음’ 콘텐츠를 통해서 위십뮤직에 쓰이는 화음에 대한 강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악보 보는 방법, 보컬을 위한 실용 화성학 강의 콘텐츠까지 25개의 튜토리얼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평균 조회 수는 약 4천 회임을 살펴볼 수 있다. 연주자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김다혜’는 위십뮤직에 사용되는 신디사이저 연주에 대한 콘텐츠 40개를 업로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채널은 위십뮤직에 사용되는 신디사이저의 음향, 연주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40개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8천 회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해외 CCM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1) 위십뮤직 콘텐츠

① 힐송위십

해외의 유튜브 채널에서 힐송위십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80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며, 업로드된 위십뮤직 ‘What A Beautiful Name’은 4.3억 회 조회 수를 보유한 콘텐츠로써, 이 채널은 유튜브의 위십뮤직 콘텐츠 중 가장 많은 조회 수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5개월 전 업로드된 ‘Hope Of The Ages(Acoustic)’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Son Of David (Audio)’ 영상까지 24개의 위십뮤직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로드된 23개의 영상 중 11개의 영상은 앨범의 표지에 곡명이 쓰인 이미지의 오디오 영상이며, 12개의 영상은 연주하며 노래하는 라이브 영상으로 구성되어 업로드되어있다. 5개월간 업로드된 24개의 콘텐츠 중 ‘Never Walk Alone’ 음악에 대한 콘텐츠는 5개이었으며, 그중 1개는 곡명이 쓰여진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고 그 외 4개는 라이브 영상이다. 이 4개의 라이브 영상은 같은 곡이지만 각각의 영상에 담긴 라이브 장소 및 분위기, 보컬과 악기의 편성이 모두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위십뮤직으로 만들어진 5개의 콘텐츠는 평균 34.8만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위십뮤직 ‘That’ s The Power’ 콘텐츠도 동일한 곡으로 4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평균 40만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예배 음악 ‘What A Beautiful Name’의 경우, 리드 싱어인 ‘브룩 리거우드(Brooke Ligertwood)’에 관한 자료¹⁸⁾를 통해 그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였으며, 브룩 리거우드는 예

18) Brookeligerwood.com. [https://www.brookeligerwood.com\(2022.04.25\)](https://www.brookeligerwood.com(2022.04.25))

배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로 잘 알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② 벤엘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벤엘뮤직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40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5개월 전에 업로드된 ‘I Believe(Lyric Video), Jonathan David Helser, Melissa Helser’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Gravity, Kristene DiMarco, feat. kalley(Studio Footage)’ 영상까지 모두 95개의 워십뮤직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이 95개의 영상 중 56개의 영상은 특별한 효과가 없이 가사만 작성되어있는 영상 콘텐츠이며, 나머지 39개의 영상은 라이브 영상으로 구축된 콘텐츠이다. 대부분의 라이브 영상은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구성되어 벤엘뮤직 팀이 속한 ‘벤엘교회(Bethel Church)’의 예배당에서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예배당에서 라이브 콘텐츠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발견한 특징 한 가지는 워십뮤직을 리드하는 싱어가 다양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브라이언 존슨(Brian Johnson), 조나단 데이비드 헬서(Jonathan David Helser), 멜리사 헬서(Melissa Helser), 단테 보위(Dante Bowe), 존 와일즈(John Wild)s 등 총 34명의 리드 싱어가 95개의 콘텐츠에 참여했으며, 95개의 콘텐츠에 총 69곡의 워십뮤직이 사용되었다.

③ 엘리베이션 워십

유튜브 채널에서 엘리베이션 워십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5개월 전에 업로드된 ‘Esperaré En Ti(Wait On You, Spanish)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Dancing(feat. Joe L Barnes & Tiffany Hudson)’ 영상까지 28개의 워십뮤직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28개의 콘텐츠 중 13개의 콘텐츠는 ‘오피셜 리릭 비디오(Official Lyric Video)’ 유형의 영상이며, 그 외 2개의 콘텐츠는 뮤직비디오 영상과 11개의 라이브 영상, 그리고 2개의 쇼츠(shorts)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라이브 영상의 대부분은 다양한 조명이 설치된 화려한 공연장의 분위기 속에서 제작되었으며, 미국의 실제 현장의 공연장 ‘FLA 라이브 아레나(FLA Live Arena)’에서 제작되기도 하였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오피셜 리릭 비디오 형식의 13개 콘텐츠에 대한 평균 조회 수는 12.5만 회이며, 11개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122만 회로 약 10배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 콘텐츠 중 2개의 영상은 기존의 영어 가사 음악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라이브 영상 콘텐츠로 업로드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1개의 라이브 영상에 담겨 있는 장소는 모두 2곳이지만 이는 라이브 세션을 제외하고 많은 회중을 동원한 영상으로서, 평균 122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① 힐송워십

유튜브 채널 힐송워십 리소스(Hillsong Worship Resources)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며, 힐송워십 팀의 워십뮤직에 대한 공식 튜토리얼 유튜브 채널이다. 총 261개의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재생목록 카테고리에는 일렉기타에 관한 콘텐츠가 32개, 어쿠스틱기타 32개, 베이스 기타 32개, 메인 건반 33개, 세컨 건반 33개, 드럼 32개의 콘텐츠와 보컬에 관한 튜토리얼 콘텐츠 4개가 정리되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채널에서 인상 깊은 특징 한 가지를 제시하면, 보컬에 대한 Tutorial 콘텐츠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워십뮤직 ‘Never Walk Alone’의 보컬에 대한 화음을 멜로디(Melody), 알토(Alto), 저음(Lower) 등의 3가지 성구로 분류하여 ‘하모니 튜토리얼(HarmonyTutorial)’이라는 이름의 콘텐츠로 업로드하여 진행하고 있다.

② 벤틀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워십 유 바이 벤틀뮤직(WorshipU by Bethel Music)’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자 벤틀뮤직 팀의 워십뮤직에 대한 서브채널(Subchannel)이다. 채널의 설명란에 서술된 내용으로는 “워십유(WorshipU)의 사명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오한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워십뮤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악기 연주에 관한 튜토리얼 콘텐츠가 50개 업로드되어있으며, 실제적인 연주 방법 외에도 워십뮤직을 이끌어가는 방법과 예배 인도자의 간증, 워십뮤직을 만들게 된 이야기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채널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워십뮤직을 이끄는 예배 인도자들의 워십뮤직에 대한 영감을 토대로 하여 이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콘텐츠에 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③ 엘리베이션 워십

유튜브 채널에서 엘리베이션 워십 리소스(Elevation Worship Resources)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써, 엘리베이션 워십 팀의 워십뮤직에 대한 공식 튜토리얼 유튜브 채널이다. 총 64개의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으며, 재생목록 카테고리에는 이 채널이 개설되기 전에 엘리베이션 워십 채널에 업로드된 튜토리얼 영상을 포함한 ‘피아노(Piano/Keys)’, ‘베이스(Bass)’, ‘드럼(Drums)’ 등의 악기 튜토리얼 콘텐츠와 ‘코드차트와 가사(Chord Chart & Lyrics)’, ‘장비 사용(Gear

Rundowns)’에 관한 콘텐츠도 업로드되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5개월간 위 십뮤직 7곡에 대한 12개의 튜토리얼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으며, 피아노, 기타를 포함하여 위 십뮤직에 사용된 5가지 악기의 튜토리얼 콘텐츠로써, 위 십뮤직의 도입부(Intro)부터 끝 (Ending)까지의 연주방법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내의 사례의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본 연구를 통한 결과에서 먼저, 콘텐츠의 다양성에 기준을 두어 탐색한 바를 비교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의 사례에서 힐송위십의 경우, 동일한 위 십뮤직 ‘That’s The Power’를 통해 4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벨엘뮤직은 브라이언 존슨(Brian Johnson) 외 34명의 다양한 리드 싱어가 콘텐츠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반면,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 마커스위십의 경우 5개월간 업로드된 콘텐츠의 유형, 촬영장소, 촬영 방식이 모두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예배 상황에서 콘텐츠를 재사용한 콘텐츠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장소나 모습을 담은 신선한 분위기의 콘텐츠는 부재하였다. 해외 채널인 엘리베이션 위십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는 비교적 정적인 ‘오피셜 리릭 비디오(Official Lyric Video)’ 형식의 콘텐츠보다 약 10배가량의 높은 조회 수를 보였으며, 앞서 언급한 국내 두 채널의 위 십뮤직 라이브 영상의 경우, 대부분 모두 교회의 예배당에서 정적인 구도의 영상으로 촬영된 콘텐츠이었으나 엘리베이션 위십은 실제 현장의 공연장에서 역동적인 카메라 액션과 위 십팀의 액션 및 제스처를 보여 차별화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의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채널이 5개월간 업로드한 라이브 영상은 5곳 이상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되었으며, 뮤직비디오,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대중가요 아티스트와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채널의 5개월간 업로드한 위 십뮤직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22만 회이었으며, 이는 마커스위십의 약 5배이며, 어노인팅 뮤직의 약 14배 조회 수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유튜브에 업로드한 국내 CCM 콘텐츠의 성공적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외의 채널 모두 튜토리얼에 관한 공식적인 채널을 보유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국내의 채널 마커스위십의 경우에는 팀에 속한 보컬, 악기 주자의 개인 채널을 통해 튜토리얼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고,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의 경우는 튜토리얼 콘텐츠를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해외 유튜브 채널이 국내의 채널보다 비교적 많은 사람을 동원하였으며, 국내의 채널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점과 국내와 해외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나라의 인구 수와 문화적 양상을 고려해야 함이 사료 된다. 또한, 주어진 상황 및 환경 내에서 양적·질적으로 발전된 CCM 콘텐츠를 위한 연구는 더 나은 기독교 문화의 발전과 다양한 기호의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효과적인 접근성 필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채널에 업로드된 5개월간의 워십뮤직 콘텐츠는 모두 공연장, 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으며, 콘텐츠를 누르기 전의 썸네일 이미지에서는 기독교 콘텐츠인지 아니면 대중음악 콘텐츠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반면, 국내 대부분의 워십뮤직 콘텐츠는 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되었으며, 썸네일 속 이미지의 대부분은 교회 예배당의 장소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주로 ‘예배’, ‘주님’, ‘예수’, ‘믿음’ 등의 기독교적 색채의 문구가 드러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콘텐츠는 국내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많은 유익함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이 이 콘텐츠를 접하기에는 접근성이 양호한 편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이 대중음악 아티스트인 ‘아년달라이트’와 함께 한 음악 콘텐츠를 조사 년도, 3월에 업로드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효과적인 접근성의 우수한 사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아년달라이트는 국내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았다.¹⁹⁾ 아년달라이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은 대중은 유튜브 검색창에 아년달라이트를 수없이 검색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 한 콘텐츠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어 이로 인해 채널에 업로드된 워십뮤직 콘텐츠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CCM 콘텐츠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만의 콘텐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편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춘 콘텐츠로 개발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19) 김효진. < ‘쇼미더머니10’ 아년달라이트, 고등학교 졸업사진 공개...나이·본명 관심 ↑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50149\(2022.04.30\).](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50149(2022.04.30).)

5. 나가는 글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콘텐츠 중 CCM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으며, CCM 콘텐츠의 대표적인 국내 및 해외 유튜브 채널을 선정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발전 방향성은 다음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비교 분석의 결과, 현재 국내 CCM 유튜브 콘텐츠는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실정에 적합한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함이 요구된다. 음악 장르의 다양성은 국내와 해외의 문화적 수용양상이 다르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널의 규모에 따라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물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장소 및 인원 편성 방법, 그리고 카메라 각도나 워킹을 달리하는 등 다채로운 연출방식의 활용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사례들을 충분히 도입하여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CCM 콘텐츠는 비기독교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콘텐츠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내 채널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교회 예배당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대중문화와의 이질감을 발생하게 하여 콘텐츠를 통해 비기독교인들이 접근할 만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국내의 CCM 콘텐츠 제작자들은 현재 비기독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음악 문화 및 음악인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인 대중가수와의 협연 등 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들을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서에 적절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의 수행으로 CCM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CCM 콘텐츠가 대중음악 콘텐츠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확고히 자리잡는데 실제적인 대안으로 더욱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문화 속에서 발전 가능한 CCM 콘텐츠의 공급에 긍정적인 동기의 부여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장동민 외 3인, 『개혁주의 문화철학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8, 21쪽.

논문

김현준, 「유튜브 CCM콘텐츠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9쪽.

원신애, 「문화콘텐츠의 도전과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가능성」. 『복음과 교육』 제11집 0호,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2012, 96~100쪽.

하재송,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과 개혁주의 예배음악의 원리」, 『성경과 신학』, 제93권 0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20, 161쪽.

정창은,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갱신 방안 연구 -루터·칼빈·웨슬리의 회중찬송을 중심으로-」. 『기독교음악·문화』, 제3권 0호, 한국기독교음악학회, 2018, 90~91쪽.

이규낙, 「한국CCM(현대교회음악) 개선방안 연구 - 교회 찬양팀 참여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5쪽.

김수연, 「온라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쪽.

오세정,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 유형 연구: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주관성 연구』,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제55권, 2021, 48쪽.

뉴스 및 사이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0190>, 2022.03.29.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8>, 2022.04.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651&code=23111314&cp=nv>, 2022.03.29.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50149>, 2022.04.30.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ontents in Korea and abroad using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presentative overseas cases and domestic cases*

Son Changwoo (Kyunghee Univ.)

Han Kyunghoon (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CCM contents in the online culture that is raised due to social distancing. Accepting the current online culture, where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nation watches YouTube,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lected as CCM content within YouTube. And after selecting three YouTube channels that can represent overseas and domestic based on the criteria of ‘content diversity’ and ‘content accessibility’, the two types of CCM content of the channe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two types of content to be comparatively analyzed in this thesis are ‘worship music content’ and ‘worship music tutorial cont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worship music content representing CCM content and worship music tutorial content necessary to develop it,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iversity and accessibility of content, and pointed out the improvement points of domestic CCM content derived from this. The effective development direction of CCM contents with diversity and accessibility in the growing online culture was presented.

Key Words: CCM, Contemporary music, Contemporary culture, Youtube music content, Christian

영화 <굿 윌 헌팅>의 이미지 경로

- 시공간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Image Path of the Movie <Good Will Hunting>

- Focusing on the Mobility of Space-Time

김영선(단국대학교)

차례

1. 시공간의 모빌리티
2. 사회적 성공 공간의 경로
3. 자기애적 성장 공간의 경로
4.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굿 윌 헌팅>에서 주인공 윌이 그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인물의 도움에 힘입어 스스로 자신의 장벽을 깨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서사를 경로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텍스트에서 모빌리티는 서사와 인물의 관계적 이동성을 나타낸다. 본고는 모빌리티의 측면에서 인물 관계와 서사의 경로 이미지를 미장센과 공간 배치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연적 서사에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와 인물의 심리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윌의 천재성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천재성이 없어도 소통이 가능한 시기에 윌은 내면적 성찰과 세계관 확장에 참여하는 기여자의 도움으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 글은 예술과 학문 융합의 관점에서 사건을 도식화하여 모빌리티의 경로로 탐색하는 방법론을 보이고, 인물의 심리를 공간의 미장센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굿 윌 헌팅, 경로, 모빌리티, 장소성, 비장소성

1. 시공간의 모빌리티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 윌 헌팅 Good Will Hunting>(1998)은 제70회 아카데미상 수상작¹⁾으로, 2016년에 ‘디지털 리마스터링(digital remastering)’²⁾ 버전으로 재개봉됐다. 주인공 역할의 맷 데이먼과 친구 역할을 연기한 벤 애플릭의 공동 각본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데이먼과 애플릭은 하버드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다. 아카데미 수상 당시 데이먼은 ‘남우주연상을 받는 것보다 애플릭과 함께 각본상을 받은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했다.³⁾ 영화는 수학, 법학, 역사학에 천재성을 보이지만 파양을 경험한 고아 출신의 청소원 윌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학을 매개로 성장하는 서사를 다루었다. 주변 인물의 호의적 접근과 선의적 태도는 사회 부적응으로 열등감에 억눌린 윌이 인간적 성숙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도록 기폭제 역할을 한다. 윌은 스스로 알을 깨뜨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동력, 즐락동시(啐啄同時)를 이루어낸다.

텍스트에서 사건의 진행과 주제적 접근은 인물 관계성과 장소적 이동성 등 시공간의 모빌리티 흐름을 통해 명료하게 드러난다. 모빌리티(mobility)는 이동 기술 수단을 포함한 이동성을 말한다. 이동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관계 맺는 네트워크, 그리고 장소를 포함한다. 임모빌리티(immobility)는 고정성, 부동성을 의미하며 이동성의 반대되는 개념이다.⁴⁾ 모빌리티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 무브먼트(movement)와 구별된다. 무브먼트는 시간 경과에 따른 공간의 변화, 즉 ‘시간의 공간화(spatialization of time)’를 의미하며 여기서 공간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된다. 따라서 모빌리티란 특정 장소 사이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⁵⁾ 장소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장소성을 획득하며 장소가 나타내는 특이성은 캐릭터와 서사 이미지의 주제적 접근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물과 장소의 관계성 측면에서 노드는 서사적 공간을 표현하는 미학을 포함한다. 윌의 재능이 드러나는 대학건물의 복도 칠판은 ‘주제성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알레고리이며 칠판에 자기표현을 기록하는 행위는 노드가 된다. 램보가 복도 칠판에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에 관련하여 문제를 기록하는데, 이 변환이 ‘학문적으로 열이 흐르는

1) <굿 윌 헌팅>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9개 부문(작품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주제가상, 음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2) 디지털 리마스터링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이던 원본을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원본을 만드는 과정이며, 아날로그의 콘텐츠가 가지는 음질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로 재생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3) 한상형, “그들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된다!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출연”, 『한국강사신문』, 2021.08.11.

4) 김주영, 「모빌리티로 본 미야모토 유리코 문학의 재해석」, 『일본어문학』 제1권 8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279쪽.

5) 이상봉, 「모빌리티의 공간 정치학: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대한정치학회, 2017, 115쪽.

방식을 연구하는 대부분 학문 분야에 응용되고, 푸리에 분석이 오래된 영화와 음악을 깔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6) 것처럼, 스카일라는 미래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는 열정으로 월을 대한다.

어릴 적 가정 폭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월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획을 긋는 문제적 인물을 만나게 된다. 상담자 손은 진심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MIT 수학과 교수 램보는 그가 수학적 소양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은 월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손과 친밀감을 느끼고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인물과 사건, 공간의 관계적 경로로 이미지화했다. 월의 공간에서 인물과 서사의 연결은 어떤 의미 지점 간의 소통으로 간주하고 위상수학적 측면으로 탐색할 수 있다.

위상수학(topology)은 위상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질에 대한 개념이다. 위상수학에서 경로(path)는 두 지점의 연결이며 상상력을 도입하여 지리적, 사회적 공간의 연결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프(graph) 또는 기하 공간(geometric space)의 경로 가운데 '최단 경로(shortest path)'는 배달원이 최단 거리의 지역을 거쳐 빠르게 도착지점에 이르도록 작동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월의 푸리에 가설 문제 풀이에는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성냥개비 모양의 경로, 선분의 개수를 괄호 안에 채워 넣는 행렬, 사건의 합을 간단히 식으로 나타낼 때 의미적 덧셈 기호 '시그마' 7)가 들어있다. 경로의 지점이 나타내는 시공간은 연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결절점, 노드(node)라 할 수 있다.

인물의 감정 변화가 시공간의 배경 이미지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카메라 촬영기법을 통해 더욱 극적으로 구현된다.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카메라가 위쪽에 위치해 깊이감 있게 촬영되며, 시내의 분위기는 뻑뻑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과 혼잡한 교통으로 답답함이 가중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인과의 이별 후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심정일 때는 카메라가 월을 프레임 중경에 클로즈업하여 담아내고 전철 안은 실제로 텅 빈 이미지로 연출된다. 후반부에 스카일라를 만나러 떠나는 장면에서는 원근법을 적용하여 하늘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월의 자동차를 곧게 뻗은 도로 중앙에 위치시킨다. 장애물이 없는 원경 이미지 구현으로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간적 이동성을 표현하였다.

<굿 윌 헌팅>의 선행연구에서 임영주, 권순희는 인물 관계에 따라 상담 수위와 속도가 적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담 장면은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줄 만큼 인상적이라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교육적 사례로서 연구되고 있다고 주장했⁸⁾으나 단편적인 설명에

6) 푸리에 분석은 이러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단일한 아이디어로 가장 유용한 수학이다. 현대 전기 통신의 근거가 되고 디지털카메라를 가능하게 하며 확장된 형태로는 FBI가 지문기록을 보존하는 데도 이용된다.

이언 스튜어트, 『위대한 수학 문제들』, 안재권 역, 반니, 2013, 23-25쪽.

7) 시그마(sigma)는 덧셈 여럿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합의 기호로, 문자 k 와 기호 Σ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2+3+4+5$ 는 끝수 1과 5를 이용하여 $\sum_{k=1}^5 k$ 로 나타내어진다.

8) 임영주·권순희, 「공감적 듣기 전략에 따른 자기 노출의 긍정적 과정 연구:영화 <굿 윌 헌팅> 분석을 중심

치우친 면이 있다. 상담 과정에서 월이 숨기고 싶던 내면의 상처가 외부로 노출되는 서사에서 공간 이미지를 미장센과 연결할 수 있다.

양우동, 사동혜, 주초첩, 권순희는 대화법 분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트라우마 치료의 상담 전략을 속성-격동-역동-심리치료 단계로 나누고 대화법을 시도한 결과, 손이 상담자로서 친절한 말솜씨와 내용 전달 역량이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⁹⁾ 트라우마 치료과정을 단계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나 월의 심리변화가 인물 관계성에 영향을 끼친 점을 논의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경희, 이현심은 진실성 있는 상담을 조사하였는데 내담자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과 존중, 공감적 이해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월이 어린 시절 양부의 폭력과 강제 파양 등 불우한 환경적 트라우마로 인해 비행을 일삼고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¹⁰⁾ 했으나 자신의 천재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문제 접근을 시도하여 변화 수용의 기미를 보이는 측면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위 연구는 손의 상담 성과를 심리학적 측면으로 살피고 그 효과성을 탐구하였다. 단지 서사의 외연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단순한 심리 변화를 다룬 것을 넘어서 인물의 성장 공간과 세계관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닫힌 세계에 갇혀있던 월이 세계의 벽을 깨고 외부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된 배경이 수학에 대한 열정과 자기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천착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굿 월 헌팅>에 나타난 인물과 공간의 관계 서사를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 전개를 연결고리로 하여 수학적 상상력으로 경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사건을 원소로 정하고, 원소가 플롯의 사건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조화하는지 경로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 글은 예술과 학문의 융합 측면에서 영상 이미지와 사건을 도식화하는 방법론을 보이고, 인물 심리를 미장센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2. 사회적 성공 공간의 경로

모빌리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공간의 변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공간은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며 모빌리티가 경계나 장소에 새로운 해석과 전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을 넘나드는

으로], 『화법연구』 제41집, 한국화법학회, 2018.

9) 양우동 외 3, 「영화 <굿 월 헌팅>에 나타난 트라우마 치료 대화법 분석», 『화법연구』 제56권, 한국화법학회, 2022, 115~147쪽 참조.

10) 김경희·이현심, 「상담자와 비행 청소년의 관계 형성 과정 분석 : 영화 ‘굿 월 헌팅’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725~724쪽.

다양한 사건의 이동, 모빌리티에 주목하여 현상을 새롭게 보는 시도는 캐릭터와 서사적 의미변화를 분석하기에 적당하다.

영상의 장면 공간은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성분이다. 플롯이 간단할 경우 사물의 적절한 배치와 안배, 미장센으로 화면의 단순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¹¹⁾ 성인이 되었으나 내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월이 자기 성찰을 통해 어른 세계로 진입하는 서사는 미래의 성장을 이루는 의식이며 통과의례의 전형적인 예이다. 성장은 인물의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며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인물 관계를 서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월의 친구 처키의 관심, 교수 램보의 열의, 심리학자 손의 소통, 연인 스카일라의 교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물의 공간이 월과 의미성을 지니면서 장소적 개념을 형성하며, 이 장소는 모빌리티의 연결성 측면에서 노드라 할 수 있다. 월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어서 과도하게 방어적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가 장기간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¹²⁾ 상상력으로 플롯에서 어떤 사건 서사에 대해 시공간적 특징을 부여한 장소를 노드로 상정하고, 각각의 노드를 연결하여 모빌리티적 경로로 구조화하여 분석하면 주제 접근에 효과적이다.

장소는 그곳이 가진 고정적·단일적 특징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들과의 이동 경로, 즉 다른 장소에 들어가는 지점인지 아니면 나오는 지점인지에 의해 구분된다.¹³⁾ 모빌리티는 주체와 사물 간의 움직임과 운동성, 움직이는 물성 간의 접촉과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규칙화되고 장소화된 공간 대신 비장소화된 공간을 모빌리티의 원형으로 생산해낸다. 모빌리티 공간은 비장소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이 공간’의 특징을 가진다. 비장소적 공간, 사이 공간은 이동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면서 이동의 흐름선 상에서 전후의 다른 공간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¹⁴⁾

플롯을 천재성과 결부시켜 세 단계, 즉 천재성으로만 소통하는 시기, 천재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는 시기, 천재성 없이도 소통이 가능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¹⁵⁾ 이 단계는 월의 개인적·사회적 성장 과정과 맞물려있다. 처키와 어울려 지내던 방황기에는 천재적 우월감

11) 주정정,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범죄 영화의 공간적 서사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4~74쪽.

12) 박성모, ‘〈굿 윌 헌팅〉 두 남자가 열어가는 감동의 세상’, 『영틀신반』, 2020.12.29., 1~3쪽 참조.

13) 이상봉, 앞의 논문, 126쪽.

14) 조명래, 「모빌리티 공간(성)과 모바일 어머니즘」, 『서울도시연구』 제16호 4권, 서울연구원, 2015, 10쪽.

15) 김혜미는 첫 단계에서 월이 세상의 법칙 따위는 안중에 없어서 천재성으로만 소통하였으며 램보 교수와 스카일라와도 소통이 어려웠고, 둘째 단계에서 그가 소년 시절 학대당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천재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었다고 했다. 셋째 단계에서는 손의 따뜻한 관심으로 진정한 세상의 법칙을 깨닫고 천재성 없이도 소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혜미, 「영화 〈굿 윌 헌팅〉에 나타난 월 헌팅의 천재성과 소통의 문제」, 『영화와 문학치료』 제2집, 영화와문학치료연구소, 2009, 135~170쪽.

으로 자신의 과거와 실재를 왜곡한다. 램보를 만나 성장의 기회를 얻기 시작할 때는 천재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어 혼란을 느끼던 월이 스카일라와 손을 대면한 이후 천재성을 드러낼 필요 없이 진실성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시기로 진입한다. 월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공간의 서사를 중심으로, 처키와 램보, 스카일라와 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노드로 구성하면 서사의 모비리티는 ‘처키→램보→스카일라→손’의 경로를 따른다.

램보가 판사의 허락을 받아 월의 석방을 돕는 과정의 사건 전개를 내러티브의 결합으로 상정하여, 합의 기호 시그마를 도입해서 덧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처음에는 청소부가 칠판에 낙서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를 냈으며, ②수학 증명인 것을 확인하고 관리실을 뒤져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③법정에서 폭행과 절도 전과로 구속되자 풀려나도록 돕고, ④나중에는 조합과 유한 수학을 가르치고 손을 소개해 심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한 다음에, ①~④의 사건을 덧셈으로 연결하면 ①+②+③+④이며 간단히

$$\sum_{n=①}^{④} n \text{가 된다.}$$

방과 후 청소 중이던 월이 칠판에 행렬과 그래프, 경로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수학적 상상력으로, 행렬은 일상적 경험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유사하고, 경로는 사건 전개의 상호 연결성을 상징한다. 수학에서 경로는 전철에서 노선, 혹은 지도상의 두 지점을 연결한 선분이다. 학문 융합의 관점에서 월의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지점으로 하고 전개를 선분으로 나타내어 경로를 구하면 인물의 상호 관계 서사와 공간적 근접성을 미장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처키와 월은 오랜 친구이며 가족처럼 지낸다. 첫 장면에서 처키는 평소처럼 월을 데리러 집에 간다. 고물이 함부로 널브러진 마당을 지나서, 현관 앞에 있는 나무 계단을 오르고 창문이 커튼으로 드리워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린다. 옷을 껴입으며 밖으로 나온 월이 마치 집안을 의식적으로 감추듯 재빨리 현관문을 닫는다. 처키가 하늘색 고물차에 월을 태우고 일터로 향한다. 친구들은 월의 천재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난하여 허름한 복장으로 노동일을 하지만 함께 야구장에 가거나 월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집단 폭행에 가담하는 것을 의리로 여긴다. 처키가 월의 천재성을 자극하려고 하버드대학 근처 바에 데려가고, “벽에 방정식 따위가 적힌 줄 알았다”라며 내부를 어슬렁거린다. 스카일라 앞에서 얼쩡거리며 말을 걸다가 허풍 센 남자 대학생에게 망신당하자 월이 다가와 언변으로 남자의 허세를 꺾어 망신 준다. 처키는 천재라며 월의 기를 세우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바의 내부가 박학다식한 월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램보는 월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낸 선각자이며 학문을 사랑하는 진정한 수학자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MIT 잡지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맞히면 특별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한다. 수강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강의실 교탁에서 램보가 복도 문제의 정답자를 기

다리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촬영하고, 원근법으로 계단이 아래로 점점 좁혀지면서 중량감 있는 분위기가 표현된다. 상을 주겠다고 해도 해결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면서 청각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음악이 흐르고 전면의 칠판이 확대되어 증명의 의미적 막중함이 고조된다. 저녁 무렵 칠판에 정답을 적으며 다양한 경로를 그리는 청소부 청년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복도 뒤편에서 월을 향해 다가오는 램보와 조교의 모습이 흐릿하게 촬영되고 월의 분필 든 손과 칠판에 적힌 그래프가 클로즈업되어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의미가 강조된다.

월의 법정 장면에서 감독은 공간의 법률적 신성함과 심문의 진실성, 관객의 이해 정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미장센으로 이미지를 구축한다. 카메라를 360도 촬영함으로써 공간 내의 법관, 피고 양측과 관객을 포함한 인물의 공간 몰입도를 제공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권력관계를 나타낸다.¹⁶⁾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법률에 조예가 있어서 법정에서 자기변호를 하는 월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좁고 어두운 취조실에서 램보는 진지하게 두 가지 석방 조건, 수학 수업과 정신과 상담을 제안한다. 정작 죄수복을 입은 월은 가벼운 협상에 대응하듯 거드름을 피운다.

램보가 소개한 교수를 월이 놀리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에서, 아름드리나무 잎들이 빛에 반짝여 캠퍼스 분위기가 활기차다. 램보는 병커힐 단과대를 찾아가 친구 손에게 정신상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램보가 연구실에서 대화를 시도하자 월은 ‘수학은 즐거워요. 하지만 평생 여기 앉아서 수학 문제의 해답을 설명하는 건 싫어요’ 라고 한다. 램보는 ‘재능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라며 월이 마음 열기를 기다린다.

스카일라가 월에게 호감이 생긴 이유는 그의 자신감과 당당함 때문이다. 넓고 누추한 차림의 친구들과 월이 자만심과 활기 넘치는 대학가 바에 들어오는 순간 스카일라는 친구와의 대화도 잊은 채 시선을 고정한다. 언변으로 거침없이 경제학도를 제압하자 그녀는 “45분이나 기다렸다” 라면서 전화번호를 건넨다. 둘이서 장난감점에서 아이처럼 놀다가 식당의 비좁은 탁자에 앉아 식사하며 사이가 가까워진다. 장난감점과 식당은 둘만의 공간처럼 아늑하고 장난기 가득한 분위기이다. 그녀는 ‘왜 내방에서만 만나냐? 형제는 몇이냐?’ 는 질문에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하고 대답을 회피한다. 캘리포니아로 떠나자고 제안했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그녀는 “면접을 많이 보고 있거든. 건설 현장 일꾼은 면할 것 같아” 라는 월의 전화에 기뻐 눈물 흘리며 비행기에 탑승한다.

요약하면 월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인물에는 처키와 램보와 스카일라가 있는데,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적극적인 관심이 노드를 구성하고 모빌리티 방식으로 연결되어 월의 성장에 기여한다. ‘푸리에 분석’ 은 램보와 손이 열정적으로 월의 외연적 성공에 가담하는 시도를 상징한다. 복도 칠판에 기록된 그래프와 경로,

16) 주정정, 앞의 논문, 63~76쪽 참조.

행렬과 시그마는 인물의 갈등을 내면적으로 구조화한 틀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월의 자기 애성과 통찰적 사고로 성장에 도달하는 이미지 분석을 위해 인물 관계성을 구체화하고 사건 전개 의미적 연결에 천착할 것이다.

3. 자기에적 성장 공간의 경로

모든 사회관계는 이동을 토대로 공간적으로 구성된다. 공간적 구조는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동이란 장소와 장소 간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행위이자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겨졌다. 이동행위가 내재한 다층적 의미보다는 이동 속도에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현시대에 이동이란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¹⁷⁾ 텍스트의 시공간은 사건 서사와 이미지적 이동성이 계속 이어지므로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월의 반사회적 경향성은 치료와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더 넓은 영역에서 비행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회복되면 박탈 이전에 지니던 사랑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배경을 이해하는 치료사나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텍스트는 성숙한 어른 되기가 천재로 살기보다 어렵다는 점을 표명한다.¹⁸⁾ 사회적 성공이 외연으로 드러나는 서사를 천재성에 관련지어 그 단계를 구분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자기에적 믿음이 월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은 월을 확실히 믿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차를 타고 지나다가 과거 월에게 폭행을 가했던 포대를 함께 혼내주려고 스스럼없이 집단 패싸움을 벌인다. 월은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거나 사랑하는 법이 서투르고 타인과 소통하고 융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만 처키, 램보, 스카일라, 손과의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간다. 월이 수학과 건물 청소를 선택한 데에는 수학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성취에 대한 열망이 들어있다. 그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잠재적 자기에와 천재성에 대한 가치인정 욕구가 있어서, 램보가 낸 복도 칠판의 문제를 외웠다가 서둘러 귀가해 문제를 풀고 다시 와서 아무도 모르게 풀이를 적고 돌아간다. 원근법이 적용된 건물의 복도 이미지는 직사각형의 중첩이 도드라져 보인다. 복도 이미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월의 시선과 닮아있다.

17) 윤신희,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국토지리학회』 제52권 4호, 국토지리학회지, 2018, 467쪽.

18) 정서희, 「위니캣의 정신분석이론으로 바라본 반사회적 경향성 : 영화 '굿 윌 헌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22쪽 참조.

손과 스카일라, 램보의 공통점은 기다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손은 병 걸린 아내가 죽을 때까지 간호하느라 학자로서 대성할 기회를 잃었으며 어릴 적 부친에게 당한 폭행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손의 치료가 성공하여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행동에 자신감이 생긴 월은 손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이란 사실을 안타까워한다.

다음의 <표 1>은 모빌리티의 이동성 경로에서 자기애성을 중심으로 월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인물 관계 서사를 고찰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1> 월의 주변 인물의 관계 표

인물	경로의 사건
처키	월의 천재성을 사랑스러워함.
램보	법정에서 보호자로 나서고 수학을 가르치고 상담 치료를 권함
손	성의껏 치료하여 월의 성장 발판을 마련함
스카일라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자고 말함

월은 자기애가 외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 인물의 도움과 관심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성장 발전해 간다.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처키와 램보, 스카일라와 손은 각자의 방식으로 월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가둬둔 동굴에서 탈출하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이 실제적 사건의 전개는 공간과 장면 이미지를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처키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스카일라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알코올중독자 삼촌 얘기를 꺼낸다. 월은 세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두려워한다. 처키는 월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기도 하고 월이 스카일라와 데이트하는 동안 그를 위해 대신 면접을 망쳐준다. 보스턴을 떠나기 싫어하는 월에게 “20년 후에도 네가 여기 살면 죽어버릴 거야”, ‘당첨될 복권이 있는데도 겁이 나 돈으로 못 바꾸는 꼴’ 이라면서 재능을 펼칠 도시로 떠나라고 조언한다. 도시에 가면 필요할 거라며 21세 생일에 고물차를 선물한다.

램보는 판사에게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염려하여 손에게 ‘월이 수학자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서로 얘기를 나눴는가’ 라고 재촉하여 묻는다. 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월은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버림받아서 나아갈 수 없는 거다’ 라고 말하자 램보는 속이 터진다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국가안보국 면접을 주선했는데, 월이 탐탁잖은 반응을 보이자 면접관이 ‘국가안보국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이유’ 를 묻는다. 그는 ‘암호를 해독했을 때 총알받이가 될 빈민층 병사의 불행’ 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다. 이 견해는 사회 문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문제의식을 통찰하는 월의 의식과 세계관을

드러낸다.

손은 상담가이지만 월만큼이나 절망적이다. 손의 강의실은 램보의 MIT 강의실과 복도가 활기차고 정갈한 데 비하여, 그의 강의실 복도 양쪽 벽에 사물함이 조밀하게 들어차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산만하다. 6평 정도의 연구실은 벽에 걸린 자기 그림만큼이나 주변이 어수선하고 사방 벽 책장뿐 아니라 책상에도 책들이 무질서하게 꽂혀서 공간이 더 비좁게 느껴진다. 좁은 거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너저분하게 잡동사니가 쌓이고 개수대엔 설거지가 그득하다. 손은 커튼을 드리운 창문 앞 탁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무표정하게 생각에 잠긴다.

첫 만남에서 월이 천재적 암기력과 직관으로 사무실 그림을 제멋대로 분석하고 오만하게 손의 인생을 재단하자 둘은 크게 다툰다. 화를 참고 손이 전문가답게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둘 사이에 오해가 서서히 풀린다. 손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상담 중에 솔직히 드러내 보인다. 지속해서 숨겨왔던, 어릴 적 자신의 양부에게 받았던 학대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보고서의 기록을 보며 월이 고통스러워하자 손이 공감력을 발휘하여 그를 끌어안으며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10회 반복한다. 비 내리는 밤에 공사장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월이 용기를 내어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전화박스에 기대서서 스카일라에게 전화를 건다.

손은 진심으로 가족 어른의 정을 전달한다. 계속해서 “무얼 하고 싶니?” 라고 질문하지만 하고 싶은 걸 모르기 때문에 월은 항상 대답하기를 망설인다. 호수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며 손이 월에게 ‘어린아이같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보스턴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주고받기에 서툰 월에게 손이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가 완벽한 관계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자 그가 자신감을 얻는다.

대부분 클로즈업되어 화면 전경을 차지하는 대화 장면은 진정한 소통의 이미지다. 스카일라는 어려운 공부가 재미있다고 농담처럼 말을 던지는 월에게 끌리고 가식 없는 진정성에 호감을 보인다. 그는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서 MIT 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쉽게 풀어내고, 다방면에 학식이 풍부한데다 어려운 화학 과제를 순식간에 해결한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월의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 ‘날 두려워하잖아. 내가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서!’ 라고 하더니 ‘자신도 두려우나 적어도 정직하고 싶다’ 라는 스카일라의 고백에 월은 망설인다.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면 그녀가 실망하고 떠날까 봐 두려워 고아인 사실을 왜곡한다. 또 그녀의 방에만 오는 이유가 ‘내 방보다 깨끗해서’ 라고 얼버무린다. 그녀가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자” 라고 제안하자 보스턴을 떠나기 싫다면서 이별을 선언한다. 손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 적 없을걸? 넌 오만한 겁쟁이 어린애야!’ 라며 질타하자 월은 깊은 상념에 빠진다.

상담 치료가 완료되어 손이 “넌 이제 자유야!” 라고 하자 월이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라며 포옹한다. 이 포옹은 가족 같은 어른이 보여준 진심에 신뢰가 싹트는 증

거이면서 즐락동시 이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처키가 텅 빈 월의 집 창문으로 내부를 살펴며 조바심을 내더니 이윽고 환하게 미소 짓는데, 그 표정에는 알을 까고 세상 밖으로 나가 자유와 성공의 환희를 만끽할 친구에 대한 격려와 감사가 뒤섞였다. 망설임을 끝내고 자율적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순간 월은 가장 먼저 손에게 간단히 메시지를 남기고, 고물차에 올라 스카일라를 만나러 캘리포니아 행 국도 위를 달린다.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면 모빌리티의 이동성 관점에서 월의 자기애적 성장 경로를 나타내는 사건은 인물 간의 서사와 공간을 통해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은 월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도시로 떠날 수 있도록 고물차를 선물한다. 램보는 그가 수학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손은 고통을 공감하여 그가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상담 치료에 전념한다. 결과적으로 월은 스카일라의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낸다.

4. 결론

영화 <굿 월 헌팅>은 고아 출신의 청소원 월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관심을 보이는 이웃으로 인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고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서사를 다루었다. 모빌리티의 사회적 관계성 측면에서 월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학자로서 성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이고, 둘째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협력자이다.

모빌리티는 이동 기술 수단을 포함한 이동성으로 네트워크와 장소를 포함한다. 임모빌리티는 모빌리티의 접근이 배제되거나 이동하지 않는 고정적 현상이다. 모빌리티에서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은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려는 물리적 행위를 나타낸다. 서사 분석에서 이동 행위가 내재한 다층적 의미보다 이동의 속도, 스피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캐릭터와 이미지, 현상이 내포한 의미성을 살펴야 한다.

인물의 역할과 캐릭터의 의미성은 공간과 미장센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며 조력자의 만남과 역할은 천재성과 결부시켜 서사를 구조화할 수 있다. 천재성만으로 소통하는 시기에는 불행했던 과거를 왜곡하고 우월한 상대와 대적하기 위해 천재적 암기력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성향을 보인다. 천재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는 시기에 월은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 앞에서 거짓된 자아를 속수무책으로 들켜게 되어 혼돈에 빠진다. 천재성 없이도 소통이 가능한 시기에는 월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대와 대면하면서 스스로 무의식의 상처를 떠올려 정화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달았던 혼돈에서 벗어나 내면적 질서를 회복한다.

인물의 관계 서사를 경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기애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인물 관계를 표로 구성하면 월이 즐락동시(啐啄同時)를 이루는 서사의 단계적 구조화가 가능하다. 램보는 월의 자기애적 성향과 천재성을 간파하고 법정 구속에서 구해내고, 처키는 고물차를 선물하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떠나라고 말한다. 유사한 고통을 겪었던 손은 어른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전파하여 월을 변화시킨다. 스카일라는 가족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월을 대하면서 함께 지낼 공간을 제안하는데, 월이 그녀의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주인공의 성장 서사를 인물 사이의 관계적 경로 측면에서 살펴보고 공간을 표현하는 미장센의 효과성을 탐색한 한계를 지닌다. 논의의 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실이나 학교, 법정, 야구장, 스카일라의 방 등 텍스트 공간의 의미성을 중심으로 인물의 서사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고, 둘째, 무의식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라캉의 욕망이론으로 고찰하면 주인공 행위의 인과성을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사건의 인과적 연결성에 대해 영상의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언 스튜어트, 『위대한 수학 문제들』, 안재권 역, 반니, 2013.

논문 및 기타

- 김주영, 「모빌리티로 본 미야모토 유리코 문학의 재해석」, 『일본어문학』 제1권 8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277~294쪽.
- 김혜미, 「영화 <굿 윌 헌팅>에 나타난 윌 헌팅의 천재성과 소통의 문제」, 『영화와 문학치료』 제2집, 영화와문학치료연구소, 2009, 135~170쪽.
- 김경희·이현심, 「상담자와 비행 청소년의 관계 형성 과정 분석 : 영화 ‘굿 윌 헌팅’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725~724쪽.
- 양우동 외 3인, 「영화 <굿 윌 헌팅>에 나타난 트라우마 치료 대화법 분석」, 『화법연구』 제56권, 한국화법학회, 2022, 115~147쪽.
- 윤신희,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국토지리학회』 제52권 4호, 국토지리학회지, 2018, 467~479쪽.
- 이상봉, 「모빌리티의 공간 정치학: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대한정치학회, 2017, 113~138쪽.
- 임영주·권순희, 「공감적 듣기 전략에 따른 자기노출의 긍정적 과정 연구:영화 <굿 윌 헌팅> 분석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41집, 한국화법학회, 2018, 155~188쪽.
- 정서희, 「위니캣의 정신분석이론으로 바라본 반사회적 경향성 : 영화 ‘굿 윌 헌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22쪽.
- 조명래, 「모빌리티 공간(성)과 모바일 어버니즘」, 『서울도시연구』 제16호 4권, 서울연구원, 2015, 1~23쪽.
- 주정정,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범죄 영화의 공간적 서사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4~76쪽.
- 박성모, 「<굿 윌 헌팅> 두 남자가 열어가게 감동의 세상」, 『영틀신반』, 2020.12.29., 1~3쪽.
- 한상형, 「그들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된다!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출연」, 『한국강사신문』, 2021.08.11., 1~3쪽.

Abstract

Image Path of the Movie <Good Will Hunting>

- Focusing on the Mobility of Space-Time

Kim Youngseon (Dankook Univ.)

This thesis analyzes the narrative in the movie <Good Will Hunting> where the main character, Will, breaks down his own barriers and comes out of the world with the help of a person who recognizes his talent and growth potenti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th. Mobility in the text represents the relational mobility of narratives and charact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nd the path image of the narrative in terms of mise-en-scène and spatial arrangement in terms of mobility.

In order to explore the meaning of space and psychological changes of characters appearing in the extended narrative,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ocusing on Will's genius. At a time when communication was possible even without genius, Will achieved growth with the help of contributors who participated in introspection and expanding his worldview. This article has two meanings: showing a methodology to explore the path of mobility by schematizing ev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rt and academic convergence, and analyzing the psychology of a person as a mise-en-scène of space.

Key Words: Good Will Hunting, Path, Mobility, Placeness, Non-placeness

『한국문화기술』 심사 규정 및 투고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평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전공교수 및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재직자를 위주로 하며, 전공별로 적절히 안배한다. 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총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논문은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집행한다.
6.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한다.
7.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결과 '게재가능'으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A4 1쪽 분량 이상의 수정대조확인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수정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 3)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4)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3인 심사위원이 동일하게 '수정후 게재'로 판정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5) '게재가능'과 '수정후 게재'의 판정에서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의 규정을 따른다.
 - 6) '게재가능' 2와 '게재불가' 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을, '게재' 1과 '게재불가' 2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 7) '수정후 게재' 2와 '게재불가' 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8.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소정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문화기술』 논문 투고 지침

1. 『한국문화기술』에 투고할 논문은 문화기술 및 문화기술연구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연구논문, 번역,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2.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JAMS에 가입하고, 투고 단계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해야 가능하다.
3.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것, 주요 내용이 이미 발표한 논문과 같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목, 대회명, 발표일자, 수록 쪽수 등을 투고 논문의 1쪽에 밝혀야 한다.
4. 논문은 논문집 발간일로부터 60일 전에 투고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학회의 사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조정될 수 있다.
5. 논문집 발간은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한다.
6. 논문은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투고된 논문은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8. 모든 원고는 ‘한글 2002’ 이상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200자 원고지 기준 100장 안팎으로 하는 원칙으로 한다.
9.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 사용을 병행할 수 있다.
10.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문화기술』 논문 작성 지침

1. 원고 작성

-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 및 외국어를 표기할 때에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투고할 때도 이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자 및 사사표시

-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서 표기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구책임자를 명기한다.
(예) 허균(천하대학교 교수, 제1저자)·홍길동(천하대학교 연구원, 공동저자)
- 2) 논문 초고의 발표 사실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표기한다.
(예) 이 논문은 2000년도 3월 2일 천하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문예창작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3)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지급 기관을 밝히며, 이 경우의 사사표시(acknowledgement)는 해당 기관의 양식에 따른다.

3. 체제

- 1) 투고논문의 체제는 ‘국문제목-영문제목-투고자 이름(소속 및 직위)-목차-국문요약-한글 주제어-본문 및 각주-참고문헌-영문초록(제목·이름 포함)-영문 주제어’의 순서를 따른다. 주제어는 5개 이상 제시한다.
- 2) 본문의 장, 절, 항, 목의 부호는 1-1)-(1)-①의 순서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호체계는 다음을 따른다.
 - (1) 국내 논저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기사·작품명(시·단편소설·영화·드라마·연극 등등)은 「 」, 단행본·학술지·잡지는 『 』를 사용한다.
 - (2) 외국 논저의 경우,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4. 인용

- 1) 인용부분은 “ ”로 표시하고,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 부분은 ‘ ’ 부호를 사용한다.
- 2) 인용할 때 생략하고 싶은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필자가 특별히 추가한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한다.
- 3) 외국어로 된 인용문은 되도록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문에 쓰고, 원문을 명기할 때는 각주에 기재한다.
- 4) 인용된 자료의 저자 성명은 성(last name)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외국인 저자의 경우는 원어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 이청준, 『서편제』, 열림원, 1998.
 Foucault, M,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9.
- 5) 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의 번호와 제목을 달고, 그 출전을 표 위에 밝힌다.

5. 주(註)

- 1) 각주(脚註) 표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의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의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단행본의 표기는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에 따라 표시한다.
 (예) 한국남, 『광복 이후의 한국문학사』, 평문사, 2001, 127쪽.
- 4) 번역서나 편저의 경우 “저자, 역자(편자),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를 지킨다.
 (예) Frye, H. N., 이상우 역,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1987, 46쪽.
 (예) Kristeva, J., 여홍상 편, 「말, 대화, 그리고 소설」, 『바흐친과 문이론』, 문학과지성사, 2000, 237~238쪽.
- 5) 논문 표기는 “필자, 「논문 제목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를 따른다. 또한 논문의 필자와 책의 저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따로 밝힌다. (영문 표기는 논문 제목은 『』로 구분하고, 서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이주영, 「친일문학 재논의」, 『재만조선인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05, 136~162쪽.
 (예) 박태일, 「장소시의 발견과 창작」, 김수복 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78~181쪽.
 (예) Klaic, L, “The Theory of Drama”, Danaway, *The Plot of the Future-Utopia and Dystopia in Modern Dram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pp.7~9.
- 6) 학술지 게재논문을 표기할 때는 “필자, 「논문 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학회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예) 박준규, 「북한의 교육현실과 남북한의 교육 이질화」, 『한국문예창작』 제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219~245쪽.
- 7) 학위논문을 표기할 때는 “저자, 「논문 제목」, 00대학교 대학원 00학위논문,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예)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7쪽.
- 8) 학술지 게재논문 외 기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자료인 경우 게재지와 발간 연호를 반점(.) 없이 이어 밝히고 발행처는 밝히지 않아도 좋다.
 (예) 도명한, 「사람들 세상의 기쁨과 슬픔」, 『문학과 사상』 2008년 겨울호, 67~84쪽.
- 9) 여러 편 자료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동주, 「디지털 콘텐츠의 미적 양식」, 『콘텐츠와 문학』 제8호, 콘텐츠인문학회, 2005, 227쪽.; 강

상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연구」, 『한국문예창작』제1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35쪽;
오진아, 「상처받은 영혼」, 『오늘의 문학』2008년 6월호, 360~363쪽.

- 10) 저서명, 논문 제목 등은 반드시 원래의 제명(제목) 그대로 기재한다.
- 11) 저자의 수가 복수인 경우, 2인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의 경우는 대표저자 외 몇
인으로 표기한다.
(예) 박진·김행숙, 『문학의 새로운 이해』, 청동거울, 2004, 171쪽.
(예) 김중현 외 6인, 『대중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5, 243쪽.
- 12) 웹사이트를 표기할 경우, URL 주소는 반드시 마지막 확장자까지 기록하고, ‘게시물 제목’ 과 방
문일자를 부기한다.
(예) White, Bebo. <Web Storytelling & Point Document Engineering>, http://www5conf.inria.fr/fich_html/slides/tutorials/T14/WWW6.html(2005.8.15)
- 13) 부득이하게 재인용이 필요할 경우 원저에 밝혀진 대로 서지사항을 최대한 정확히 표기한다. 이
때는 재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원저자, 저서) 출처, 재인용” 의 순으로 밝힌다.
(예) (Bluestone, J., *Novels in to Film*, 1975, p.41.) 송희복, 『영상문학의 이해』, 두남, 2002, 47쪽. 재인용.
- 14)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 ‘위의 글’ 로 표기하고, 그보다 더 앞에서 인용
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앞의 글’ 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 끝에 첨부하되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 인용하거나 논문 작성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3)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언어권의 순서로
정렬한다.
- 4) 한국, 중국, 일본의 논저는 저자명 가나다 순, 다른 언어권은 저자명 알파벳 순으로 한다.
- 5) 한 저자의 저작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출판 연도 순으로 배열한다. 출판 연도가 같은 경우, 제
목의 문자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을 반복해서 적지 않고 일정한 길이의
밑줄(____)로 표기한다.
(예) Freud, S.,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2.
_____, 김재혁·권세훈 공역, 『꼬마 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2003.
_____, 『예술, 문화,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 6) 논문의 필자와 책의 편·저자가 일치하지 않고, 여러 편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책 제목을 한 번만 밝히고, 개별 논문은 그 아래에 일정한 길이의 밑줄을 그어 서지를 밝힌 뒤
출처를 순서대로 명기한다.
(예) 박덕규·이은정 편저, 『김춘수의 무의미시』, 푸른사상, 2012.
_____, 권혁웅, 「무의미시는 무의미한 시가 아니다」, 201쪽.
_____, 김승희, 「김춘수 시 새로 읽기—Abjection, 이미지, 상호텍스트성, 파쇄된 주체」,

59쪽.

7) 문헌정보의 기재는 각주 기재 순서와 표기양식을 따르되, 인용 논문의 경우 발표지에 해당 논문이 수록된 모든 쪽수를 반드시 명기한다.

(예)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 비평』2008년 겨울호, 67~84쪽.

(예) 김성렬, 「가족 소재 소설로 읽는 한국 근현대 소설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문예창작』제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171~199쪽.

7. 요약문 및 기타

1) 투고 논문에는 국문 요약문과 영문 초록(250~350단어 기준), 주제어(한글·영문, 5개 이상)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 투고 논문에 대한 그 밖의 지침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국문요약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800글자(공백 제외) 이상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4) Abstract는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1600글자(공백 제외) 이상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함)의 연구원 및 관련 인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출판물을 비롯하여, 연구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보호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소장 직속 기구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상임연구원,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제5조(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그 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6조(적용 범위)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의 연구비 수탁, 집행 및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업적이나 데이터 및 문장 등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술지에 재 수록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5.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4장 제소

제7조(심의발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제소로부터 시작된다.

제8조(제소자격) 연구윤리 관련 당사자가 동일 전공분야 연구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소할 수 있다.

제5장 심의 절차와 방법

제9조(심의 요청)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심의 적용 범위) 본 규정의 '3장' 에 정의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심의 절차와 방법)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소된 사안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소의 내용이 인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한다.
7. 피제소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해 재소명할 기회를 준다.
8. 30일 이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재를 시행한다.

제6장 보호

제12조(비밀 보장)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의 신원 및 제소 내용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제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제13조(책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의 사실 여부가 판정될 경우, 부정 제소는 제소자 본인, 부정 행위는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4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자의 학회 활동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에서 결정하며, 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정 제소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 행위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학술지 수록 논문 총 목차에서 삭제하며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학회 및 제소자에게 공개 사과한다.

제15조(조치사항 공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8장 기타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논문 수정 대조 확인서 양식

논문명 :			
번호	페이지	수정사항 및 지적사항	비고

※ JAMS 2.0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사용가능. 별지 사용시 해당 양식 가능.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혁

■ 2023. 2. 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융합과 소통>

— 장소 : 일본 도쿄, 진보초 책거리

— 발표 : 황은지, 「케이팝(K-Pop)과 퓨전국악(國樂)의 관계성 연구」

요쓰모토 야스히로, 「팬데믹에 대처하는 시의 융합과 연대 :시로 여는 언어의 장벽」

안도현, 「백석의 동시로 본 문학주의의 좌절」

노마 히데키, 「21세기 종합예술로서의 K-POP 혹은 K-ART」

수잔 페이지 테일러, 「진보초에서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고서적 거리의 새로운 미래」

■ 2022.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3호 발간

— 수록논문 :

이정호, 「그림책의 글 서사 완결성에 관한 고찰 - 『백두산 이야기』의 세 판본을 중심으로」

하은애, 「강정규 소년소설 『돌』 연구 - 개작과 변경 과정을 중심으로」

김지은, 「박서원 시에 나타난 공간성 연구」

■ 2022. 8.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4회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예술매개의 새로운 기술과 전망: 예술통합교육의 교수학습법>

— 장소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D동 201호 세미나실(1부) / ZOOM 비대면 화상세미나(2부)

— 발표 : 박은혜, 「황선미 청소년소설 감각 자극의 추리서사기법 연구 - 황선미 『사라진 조각』, 『틈새 보이스』, 『엑시트』를 중심으로」

최서우, 「문학관 전시의 융합예술 활용 양상과 방향 - 인천광역시 한국근대문학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채현, 「그림책 속 문자 텍스트의 의미 효과」

박지숙, 「예술중심 융합인재교육(A-STEAM)의 실천방향」

최원재, 「디자인 융복합교육 사례연구」

안시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

김희선, 「대중가요 작사교육이 여고생의 뇌기능 및 언어·음악·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 2022. 4. 2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3회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어울림, 동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형식들>

— 장소 : ZOOM

- 발표 : 장유정, 「중·고등학교에서 대중음악을 활용한 교육 방법 시론」
- 한경훈, 「글로벌 OTT 콘텐츠 제작관리에 적용된 기술동향 연구 - 영상음악 제작을 중심으로」
- 김연주, 「마을공동체 내 문화공간의 역할 - 기록으로서의 예술」
- 홍지석, 「동시대 예술의 우회로 - 아키비스트로서의 예술가」

■ 2022.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2호 발간

— 수록논문 :

- 양소영,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 마혜경, 「한강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 몸의 의미와 저항 읽기」
- 유용연, 「소설과 TV드라마의 서사구조 비교분석 — 소설 「너를 닮은 사람」과 TV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을 중심으로」
- 김보경, 「창작 동화에서 ‘떡’의 서사적 활용 양상 — 『겁보만보』, 『백일떡』, 『만복이네 떡집』을 중심으로」
- 김민숙, 「유튜브 방송에 나타난 탈북 유형 분석 — 배나TV ‘탈탈탈’을 중심으로」
- 황은지, 「심미적 경험 중심 보컬교육의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 2022. 2. 24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2회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문학예술의 통합적 인식, 그 변주와 확장>

— 장소 : 대구교육박물관

- 발표 : 김정학, 「경계인의 생존방식 :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 강민희, 「여학생일기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대구와 장소성」
- 배혜정, 「생태 예술과 정동의 역학 : 세계에 관한 재정립 그리고 다시 관계 맺기」
- 이은주, 「그림책의 형식의 변주와 확장」

■ 2021. 12. 15.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문학과 문화예술의 융합과 확장>

— 장소 : ZOOM

- 발표 : 잭 마리나이(Gjeko Marinaj), 「『프로토니즘』, 다원론적 문화비전」
- 윤범모, 「진화하는 전시」
- 엠마 야렛(Emma Yarlett), 「그림책의 역할과 전망」
- 양구(梁玖), 「중화권 북디자인 사례」
- 김승복(金承福), 「디지털 시대, 책과 책읽기」

■ 2021.

한국연구재단 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선정 및 수행

■ 2021.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1호 발간

— 수록논문 : 김지은, 「이연주 시에 나타난 질병 모티프의 이중성」

아타세벤 파덴, 「한국 영화가 터키 영화에 끼치는 영향 - 한국 영화 <7번 방의 선물>과 각색 터키 영화 <7번 방의 기적>을 중심으로」

박소연,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 융합스토리텔링 양상과 방안 연구」

■ 2021.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0호 발간

— 수록논문 :

마혜경, 「이영도 시조의 서정성 연구」

유용억, 「박석수 소설의 공간 양상 연구 - 소설집 철조망 속 휘파람, 쭉고개를 중심으로」

김민숙, 「탈경계인의 유목서사와 정체성 - 바리데기와 리나를 중심으로」

류경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유형 연구 - ‘국내외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안성은, 「웹툰 <우리집에 꿈이 이사 왔다>를 통해 본 상호성장의 과정 - 상실 극복과 성장공간을 중심으로」

우정인,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방 스토리텔링 -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중심으로」

■ 2020. 12. 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1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서사 논의의 새로운 방향>

— 장소 : ZOOM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203호

— 발표 : 이은주, 「초기 그림책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형상화 양상」

최현정, 「그림책 산업의 확장, 전자책」

권혜경, 「2000년대 그림책의 서사 양상」

김종광, 「보령과 이문구와 나」

유용억, 「평택과 ‘쭉고개’ 작가 박석수」

김태수, 「천안과 월북작가 이기영」

■ 2020.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9호 발간

— 수록논문 : 조미희, 「1990년대 안도현 시의 서정성의 변화 연구」

- 시집 『그대에게 가고 싶다』외 3권을 중심으로」

이화경, 「연애 소설 속에 나타난 정념과 죽음충동에 대한 연구」

곽고운, 「정채봉 동화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박은혜, 「수치의 윤리관 — 이금이 장편동화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경우」

■ 2020.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8호 발간

— 수록논문 : 정은주, 「1990년대 여성 서사의 이미지연구」

우경희, 「이윤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정체성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 『나무가 기도하는 집』, 『그리운 흔적』을 중심으로」
장희가, 「2000년대 문학에 나타난 도시적 삶과 공간」
심영아·최수용, 「영화 <벌새>에 나타난 상실과 소통의 성장서사」

■ 2019.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9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문학의 영역 확대와 세계화 양상>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사범관 208호

— 발표 : 박덕규, 「한국문학의 영역 확대와 세계화 양상」

안선재, 「한국문학작품의 영어 번역에서의 특징」

성초림,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 -2인 공동번역체제와 번역가 양성의 문제」

아르마 시안자 힐자네스, 「이야기하는 것을 번역하고 이야기되지 않는 것을 번역하기 -번역의 몇 가지 난제에 대한 탐구」

응우옌 응옥 켜, 「한국문학작품을 베트남어로 번역하기」

가브리엘 실비안, 「영어권 시장에서의 한국글로벌문학 및 세계시인으로서의 기형도에 대한 사유」

한성례, 「한국문학작품의 일본 진출의 사례 -한일 간 문학 번역의 개척과 결실」

이안재, 「향주, 교토에서 만나는 정지용과 윤동주」

이승하, 「호주에서의 한국문학 창작 현황과 전망」

■ 2019. 10. 2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0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문학과 문화기술의 가치 확산>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2호

— 발표 : 장원재, 「배나TV를 중심으로 한 통일문화운동 사례」

오은정, 「남북한 생활 경험과 글쓰기 사례」

유종인, 「문자의 미술적 세계성」

권혜경, 「영어 교육 교재로 본 한국 동화」

박덕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적 가치」

김종경, 「지역 매체의 문화생산 양상」

■ 2019.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7호 발간

— 수록논문 : 김민숙, 「탈분단시대의 탈경계인의 유형과 특수성」

심영아, 「박솔피의 재난서사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 원전 사고 이후를 그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김종경, 「용인지역 문학비 실태와 문학순례길 제언

- 문학인 묘소, 문화공간으로서 의미」

이미숙, 「북한 대집단체조의 변천 연구」

-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 2019.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6호 발간

— 수록논문 : 임옥규, 「감성의 조직과 재편성 - 북한 감성론을 중심으로」

김홍진, 「관계와 타자성 탐구의 시학 - 이은봉론」

김수완, 「이미지의 유형과 여백」

이화영,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신화적 시공간 연구 - ‘틈’ 과 ‘길’ 을 통한 통과제의적 양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강동완, 「김정은 시대 북한 화장품의 ‘선전’ 과 ‘실제’ : 화장품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 문화」

■ 2018. 12. 1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9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문화기술의 콘텐츠와 상상력>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D동 207호

— 발표 : 문혜진, 「말놀이동시의 재미와 의미」

노경수, 「생태환경과 동화적 상상력」

김수희, 「과학문화와 놀이 교육」

이은주, 「그림책의 글로벌 감각」

박덕규, 「트렌스내셔널 시대의 문화기술적 상상력」

홍지석, 「미의식의 전통성과 세계성」

김정애, 「남북한체험과 글쓰기 양상」

오태호, 「탈분단 상황의 문학적 인식」

심지원, 「재외한인 서사콘텐츠의 새로운 가치」

■ 2018. 10. 16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8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탈분단시대의 한국문학과 세계문화>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2호

— 발표 : Park Mikhail, 「나는 한국을 주제로 한 소설을 어떻게 썼는가」

도명학, 「북한문단 실태와 한국 내 탈북작가의 고충」

Lim Hyeshin, 「글로벌리즘과 개인의 황야」

강동완, 「미디어를 통한 분단의 경계 넘기: 북한에서의 한류현상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박용재, 「탈분단시대, 뮤지컬스토리의 확장성: 무용과 최승희와 화가 니콜라이 신을 중심으로」

최수웅, 「한국 로맨스 서사의 새로운 창작 경향」

■ 2018.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5호 발간

— 수록논문 : 박영우, 「융복합 스토리텔링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배인교, 「북한, 음악, 그리고 통합 연구」
 심영아,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성장서사 연구 - 어머니상의 통합과 자아 통합을 중심으로」
 김수경, 「김경린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 2018.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4호 발간

- 수록논문 : 김용남, 「한강 『채식주의자』 속 이미지 연구 - 폭력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김정남, 「정이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생태학과 윤리학
 - 소설집 『오늘의 거짓말』을 중심으로」
- 김진수, 「유튜브 플랫폼의 변천 양상 연구」
- 백현주, 「권용철 동화의 여행 모티브 연구 - 「동화 나라의 달」, 「하늘이 보내준 여행」, 「마음 나라 여행」, 「햇기」를 중심으로」
- 이지용, 「북한 영화의 환상성 구현 양상 연구 - 영화 <불가사리>의 장르구분과 내용적 특징을 통해」
- 홍지석, 「1950년대 후반 북한문예의 부르주아미학 담론」

■ 2017. 11.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사업 종료 (2008.12.1~2017.11.30.)

- 참여 연구인력 : 교수(공동 포함) 20명, 보조원 6명, 행정전담 1명
- 성과 : 국내학술대회 개최 : 9년 총 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9년 총 8회
 학술대회 발표 178회(1단계 44회, 2단계 81회, 3단계 53회)
 학술지논문 발표 135편(1단계 46편, 2단계 49편, 3단계 40편)
 단행본 발간 : 10권
 우수성과 선정 : 2회(2012, 2016)

■ 2017. 11. 2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8회 국내학술대회 / 제2회 포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D동 201호
- 발표 : 최수웅(단국대), 「길의 끝, 혹은 시작」
 전영선(건국대),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현황과 성과」
 임옥규(단국대),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쟁점들」
 오창은(중앙대), 「남북한 문화예술의 연결 고리들」
 배인교(경인교대),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의 지향」
- 패널 : 이지용, 이윤정, 나소정, 김미나, 황희정, 김보경

■ 2017.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3호 발간

- 수록논문 : 김홍진, 「한국 현대시에 나타나는 대지의 상상력과 공동체 의식 양상」
- 박영정, 「북한미술의 국제교류와 해외 시장 진출」
- 심유미, 「김훈 소설에서 시간과 윤리 - 『칼의 노래』를 중심으로」
- 이윤정, 「유성기음반을 통해 본 경서도 명창들의 남도음악 수용 양상」
- 윤상길, 「1950년대 한국 라디오 문화의 유동성 : 시사만화로 보는 1950년대 라디오의 풍경과 사회적 인식」
- 안수연·박덕규, 「동화에 나타난 탈북아동 형상화 연구」
- 임옥규, 「1950년대 북한 여성교양 담론과 문학」

■ 2017. 8. 30

2017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등재후보지 계속 유지

■ 2017. 7. 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임옥교, 배인교 퇴임 / 이윤정, 나소정 부임

■ 2017. 6. 2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7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경계의 수렴과 확산>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 발표 : 황희정, 「북한 회화에 나타난 ‘제주’ 공간 연구」
- 김보경, 「4·3의 기억 재현 방식 연구」
- 김준기, 「제주미술연구의 현황과 쟁점」
- 박덕규,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추사와 제주」
- 안노 마사히데, 「어느 제주 출신 제일조선인의 궤적」
- Sunha, Hong, 「Self-Knowledge in the Data-Driven Society」
- 홍민석, 「광고콘텐츠로서의 지역문화」

■ 2017. 5.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7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 국제시낭송과 강연

<글로벌 시대, 공존의 언어>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
- 발표 : 김미나, 「북한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연구 - <방탄벽>을 중심으로」
- 이지용·홍지석, 「통일시대를 위한 한민족 문화권과 지역양식 연구」
- 최수용, 「한민족 신화의 현대적 변용 사례 - 주호민의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 고은, 「그것은…」 외 5편

로버트 하스, 『MEDITATION AT LAGUNITAS』의 5편

■ 2017.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2호 발간

- 수록논문 : 강희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 비평의 특징 고찰 - 신문 《레닌기치》를 중심으로」
김미나, 「단막극에 나타난 탈북자 재현양상 연구」
권혜경, 「심의린의 ‘개구리 신선(神仙)’ 연구」
백현주, 「조선어 독본에 수록 된 이습우화 연구 - <개미와 베짚이>류 이야기를 중심으로」

■ 2016. 12. 28

「201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 김수복(연구 소장)

■ 2016. 12. 16

전임연구원 단행본 발간

- 이지용, 한국언론정보학회지식총서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2016. 12. 16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4회 비평 및 논문공모전 결과 발표

- 수상자 : 김지현 (최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학과),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웹툰 <로동신문>, 남북한의 벽을 허물다」
김지현 (최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영화 <태양 아래>가 갖는 가치와 한계점 파악」
민경주·박하은 (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백석 시에 등장하는 북방지역 문화 연구」

■ 2016. 11. 24

<2016년 인문·사회과학 우수성과교류회> 참석

- 참석자 : 이지용(전임연구원), 박은혜, 김지현, 정예솔, 김여정(이상 보조연구원)
- 장소 :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

■ 2016. 10. 24-11.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4회 비평 및 논문공모전 시행

■ 2016. 9. 21

대학생 통일문화아카데미 : 탈북작가와 함께하는 북한문학이야기

- 장소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주최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팀
- 발표 : 북한문학에 대한 기억과 나의 문학 (도명하, 탈북작가, 소설가) 북한 소설의 이해 (오창은,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학평론가)

■ 2016.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1집 발간

- 수록논문 : 김미진, 「경희극 <산울림>의 위상 변화와 현재적 의미」
- 민웅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성찰적 종교교육 체계의 구현 가능성 - 대중문화 담론 및 기독교 담론 간 관계의 탐색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백승국, 「캐릭터 이미지 모형과 스토리텔링 - 기호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신정아, 「해방 후(1945-50)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아동문학의 전개양상과 화자의 위치 - 월남전 강소천 작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임옥규, 「1950년대 북한 문학담론의 미적 토대」
- 조안나·김수복, 「북한 시에 나타난 ‘천리마 시대’ 서정적 주인공」

■ 2016. 8. 2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포럼 개최

<한민족 문화예술 소통과 융합을 위한 연구 실천 사례와 전망>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 발표 : 이상숙, 「북한시학 연구」
-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 전영선, 「통일인문학 연구」
- 남원진, 「총서 ‘불멸의 역사’ 연구」
- 이지순,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 박덕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

■ 2016. 8. 3

2016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등재후보지 계속 유지

■ 2016. 7. 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6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북아 문화환경과 문학 교류>

- 장소 : 일본 바이코학원 대학 도서관홀
- 발표 : 이데 순사쿠, 「티끌 모아... 저의 단편적인 한국체험」
- 홍지석, 「파스쿨라와 카프 - 한국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기원」
- 시라카와 유타가, 「신민지 조선의 한국의 일본어 소설 - 대만과의 약간의 대비를 통해서」
- 이지용, 「한국 장르문학의 형성과 특징 - 장르 유입기의 양상과 주변국들의 영향」
- 제인 하, 「개나리와 진달래는 아마도」
- 서재근, 「시적 교류 매개체로서의 ‘대시(對詩)’ - 신경림과 다니카와 순타오의 경우」
- 김수복, 「이의 상쟁을 넘어서 민족 상쟁의 세계로 - 「지리산 1」(외 5편)의 작품들」
- 호리 마도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근현대시의 수용 - 이바라기 노리코를 중심으로」
- 이승하, 「인간의 마을에 또 다시 밤이 온다」

박덕규, 「불통(不通)과 통(通)의 변증법」

■ 2016. 07. 08-07. 1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3단계 2년차 해외자료수집

— 일본 시모노세키 바이코학원 대학, 후쿠오카 소재 규슈대 등 후쿠오카 지역 일대

■ 2016. 07. 0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이지용, 김미나 부임

■ 2016. 05. 3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김미진, 정영권 퇴임

■ 2016. 04. 2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6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횡단과 이주>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2층 다목적실

— 발표 : 박은혜,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의 문학적 회고 - 강귀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정영권, 「한국 독립영화에서 탈북자의 장소/공간과 정체성 - <처음 만난 사람들>과 <무산일기>를
중심으로」

박계리, 「변월통과 1950년대 북한 미술계」

배인교, 「북한의 아리랑류 민요풍 노래의 대중성 - 2000년대 이후 아리랑류 악곡을 중심으로」

김수복·조안나, 「북한 시에 나타난 ‘천리마시대’ 의 서정적 주인공」

김미진, 「경희극 <산울림>의 위상 변화와 현재적 의미」

■ 2016. 03.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화예술 총서 11>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속도의 풍경 : 천리마시대 북한 문예의 감수성』, 도서출판 경진, 2016.

■ 2016. 0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0집 발간

— 수록논문 : 권금상, 「인민의 몸과 마음을 규율하는 지배 권력의 성(性) 담론: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김경훈·박영우,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을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 연구」

김미나, 「이문구 작품 속 한강의 공간성 연구 - 1960년대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김미애, 「북한의 「나무꾼과 선녀」 서사양상 연구」

김 승, 「탈북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의미전달 체계: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중심으로」
 김윤경, 「전봉건 시의 결정판 확정에 대한 기본 유형과 의미화」
 박태상,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백두산 칼바람’ · ‘최첨단 돌파’ 의 과제-『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오춘옥, 「고은문학관 라키비움(Larchiveum) 구성 방안 연구」
 정영권 · 김소원, 「국민 여배우 혹은 선전의 꽃 - 문예봉, 리상란, 하라 세츠코와 그녀들의 시대」

■ 2015. 12. 20

전임연구원 단행본 발간

—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1968』, 소명출판, 2015.

■ 2015.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확장하는 경계 공존의 장: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쟁점>

— 장소 : 단국대학교(천안) 율곡기념도서관 CS경영센터

— 발표 : 박태상(기조발제),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최첨단 돌파’ 의 과제: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임옥규, 「1950년대 북한의 부르주아 문학담론」

한상언, 「박학의 삶과 영화 활동 연구」

홍지석, 「프롤레타리아 미학과 부르주아 미학」

강상대, 「북한지역의 녹죽부인 서사 연구」

■ 2015.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전 결과 발표

— 수상자 : 박은혜(대상, 단국대 동양학과) - 「걸어서 평양여행」

김정민, 이나경(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 「탈북, 디아스포라: 가장자리에서 가장, 중심을 잘 잡는 자」

박소희, 김경희(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 「1990년대 분단문학에 나타난 통일 지향 의식」

이현승(우수상,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 「전후세대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사상」

■ 2015. 10. 12~11.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전 시행

■ 2015. 10. 07

<대학 중점연구소 성과교류회 평가> 참석

- 참석자 : 김수복(연구소장), 김미진(전임연구원), 조안나(연구보조원)
- 장소 : 부산 동서대학교 해운대 센텀 캠퍼스

■ 2015. 09.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10>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세대와 젠더: 동시대 북한문예의 감성』, 도서출판 경진, 2015.

■ 2015. 09. 24

해외한민족 문학인 특별 강연
 — 강연자 : Tanya Ko (LA 미주한인문학회)

■ 2015. 0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9집 발간
 — 수록논문 : 김미진, 「북한 연극의 인물 전형 형상화」
 노혜진,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 제안」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이길상, 「이용악 시의 저항성 연구」
 임옥규, 「북한 문학에서 전통과 계승의 문제」

■ 2015. 07. 17

한국장학재단 <2015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 선정
 — 수혜자 : 학문후속세대 조안나(박사과정), 박은혜·박가연(석사과정) 연구보조원

■ 2015. 07. 1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5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질합의 문화적 상상력: 만주와 동아시아>
 — 장소 : 중국 길림대학교 외국어학원
 — 발표 : 김미진, 「북한 ‘교예’ 의 유형과 장르적 고찰」
 玄千秋, 「‘간도’ 이민제재소설의 사회정치문화콘텍스트 및 창작주체비교 연구: <북간도>, <고난의 년대>, <눈물젖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최수웅, 「한국 영화가 ‘만주’ 표상을 소비하는 방법」
 정영권, 「국민 여배우 혹은 선전의 꽃: 문예봉, 리상란, 하라 세츠코와 그녀들의 시대」
 权赫律, 「6·25와 한국소설」
 배인교, 「북한 민족음악의 전통과 변용: 2010년대 배합관현악을 중심으로」
 Tanya Ko, 「Comfort Woman: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에 관한 시」

■ 2015. 07. 10~2015. 07. 1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3단계 1년차 해외자료수집

— 장소 : 중국 장춘 길림대학교, 심양 신화서점

■ 2015. 06. 15

전임교원 단행본 발간

— 박덕규, 『아동문학의 마르지 않는 샘: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

■ 2015. 05. 22

2015년 상화문학제 ‘제30회 이상화시인상’ 수상

— 수상자 : 박덕규

■ 2015. 04.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4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북한의 이미지, 세대와 젠더〉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2층 다목적실

— 발표 : 홍지석, 「북한 미술의 몸 담론」

황희정, 「1960년대 초 북한 회화에 나타난 ‘청년’ 표상」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 속 어린이·청소년 형상과 젠더」

권금상, 「‘총대’ 서사의 젠더 이데올로기」

신정아, 「해방 후(1945-1950) 북한 ‘문맹퇴치’ 운동과 아동문학」

박덕규, 「탈북소재 문학작품의 유형과 특징」

■ 2014. 12.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8집 발간

— 수록논문 : 김현진,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 비교분석 - 〈마녀 배달부 키키〉를 중심으로」

박소원, 「홍신선 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 - 시집 『삶의 옹이』를 중심으로」

배인교,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의식음악」

안 광, 「이청준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 단편소설 『소매치기올시다』를 중심으로」

장윤미, 「영화 속의 연산군과 ‘불안’ - 영화 〈연산일기-장한사모〉, 〈폭군 연산 -복수 퀘거〉를 중심으로」

■ 2014.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3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북한문화예술의 전통과 현대〉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문관

— 발표 : 곽효환, 「해방기 이용악 시의 변화과정 연구」

김미진, 「북한 연극의 ‘1970년대 창조기풍’ 과 현재적 의미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중심으로」

정영권, 「2000년대 북한 영화에서 세대 문제」

강상대, 「북한 지역 ‘녹죽부인’ 서사 연구 - 친자 탐색을 중심으로」

■ 2014. 12. 04

2014년도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등재후보지 선정

■ 2014. 12. 0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 3단계 진입

■ 2014. 11. 17

<2014년도 인문·사회과학 우수성과 교류회> 참석

- 참석자 : 김수복(연구소장), 김미진(전임연구원), 황희정(연구보조원), 김지현(연구보조원)

-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2014. 11. 15

<제5회 독일어권 한국학 대회 ‘Vereinigung für Koreaforschung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German-Speaking Countries)’ > 참석

- 참석자 : 임옥규(전임연구원), 배인교(전임연구원), 홍지석(전임연구원), 정영권(전임연구원)

- 장 소 : 독일 튀빙겐 대학교

■ 2014. 11. 01~11. 30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3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전 시행

■ 2014. 10. 31~11. 20

(사)원코리아 통일문화캠프 <통일문화미래아카데미> 공개 강좌 강사진 참여

- 참여자 : 박덕규(공동연구원), 홍지석(전임연구원), 정영권(전임연구원), 김미진(전임연구원), 전영선(공동연구원)

■ 2014. 09.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화예술 총서 9>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통일문화사대계: 2000~2009 북한 문예비평 자료·해제집』,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4. 09. 25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8>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한민족 문화예술 감성용어 사전 용례집 1』,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4. 09. 19

제4회 정현웅 연구 기금 수상

- 홍지석 연구교수

- 연구주제 : 「1930~1940년대 정현웅(월북작가)의 미술 비평」

■ 2014. 09. 18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1) <북한문학예술 총서 6>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스타일의 탄생: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과정』, 도서출판 경진, 2014.

2) <북한문학예술 총서 7>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지향과 현실: 남북문화예술의 접점』,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4. 08. 14

2014년도 범정우수논문 최우수상 선정

- 수상자 : 김보경(연구보조원)

- 수상논문 : 「리원우의 아동문학론 연구: 『아동문학창작의 길(1956)』을 중심으로」

■ 2014. 06.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7집 발간

— 수록논문 : 구혜숙, 「억압의 현실을 전복시킨 희망의 언어-이시영의 『만월(滿月)』과 김명 인의 『동두천(東豆川)』을 중심으로」

김혜숙, 「이형기 시의 서정성 연구 - 『적막강산』과 『절벽』을 중심으로」

이종수, 「지역문화공연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

이재현, 「김수복 시의 기억 속에 내장된 ‘시림’ 과 ‘배고픔’ 의 구조 - 시집 『외 박』을 중심으로」

홍지석, 「북한근대미술사 서술의 양상과 특성 - 근대미술의 기점과 ‘조선화’ 의 근대성 문제를 중심으로」

박해울,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 연구-캐릭터와 공간을 중심으로」

■ 2014. 06. 05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초청 강사 : Theaesa Hyun(캐나다, York Univ.)

- 강연 주제 :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시를 창작한다는 것
- 장소 : 예술관 D동 308호

■ 2014. 05.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장소 : 국립예술자료원(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3층)
- 발표 : Theaesa Hyun, 「일제 치하 조선 아동문학 번역과 북한 아동문학 번역」
박미영, 「북미에서의 한국 시조의 정착과 변용」
임옥규, 「해외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인식 현황과 과제」
후지무라 마이, 「1950년대 일본 전위미술에 나타난 저항주의-그 전개와 쇠퇴과정을 중심으로」
한운석, 「독일의中等교육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김성수, 「언어 공동체의 운명-남북한 문학과 언어 교류의 현황과 과제」
박영정,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김영일, 「남북 문화예술 협력 방안 및 문화예술 정책」
박덕규·이은주, 「분단 접경지역 문학공간의 문화적 의미」

■ 2014. 04. 16

정보교류협력기관 지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 MOU 체결 기관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2014. 04. 11

북한연구학회 2014 춘계학술회의 참가

제5회의 <김정은체제의 문화담론 분석>

- 장소 : 북한대학원대학교
- 발표 : 김미진(전임연구원), 「김정은 체제 초기 북한영화계의 계승 담론」
- 토론 : 전영선(공동연구원)

■ 2014. 04. 0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김정수 퇴임
- 정영권 임명

■ 2014. 03. 2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2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분단의 감성(感性): 이미지와 서사>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CS경영센터

- 발표 : 박덕규·김지훈, 「탈북 체험의 시적 형상화 문제」
- 김 승, 「탈북을 다룬 다큐멘터리 연구-EBS의 ‘천국의 국경을 넘다’ 를 중심으로」
- 윤은주, 「남북교회 교류와 남한교회 대북관 변화에 대한 소고」
- 홍지석, 「재일조선인 미술가들의 북행(北行),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표세중, 조양규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계리, 「정전 60주년 지속되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분단 풍경」
- 김미진, 「TV예능프로그램 속의 탈북자」

■ 2014. 03. 15

전임교원 단행본 발간

- 최수용, 『키워드로 읽는 어린이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14.

■ 2014. 01. 27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5〉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이데올로기의 꽃: 북한문예와 북한체제』,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3. 12.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6집 발간

- 수록논문 : 강민희, 「천안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 김미진, 「북한 TV드라마의 유형과 체계」
- 김지훈, 「정호승 시의 아나미 연구-연작시를 중심으로」
- 이경아, 「경계와 초월의 시 정신 - 신경림 후기시를 중심으로」
- 황희정, 「김정은 시대의 북한 연극 - 2011년 이후 희곡을 중심으로」

■ 2013. 12. 04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개교 35주년 기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체제의 주변: 타자, 소수자, 외부자의 형상〉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다목적실
- 발표 : 황희정, 「김정은 시대의 북한 연극 - 2011년 이후 희곡을 중심으로」
- 김보경, 「리원우의 아동문학론 연구 - 『아동문학 창작의 길』(1956)을 중심으로」
- 박해울,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 연구 - 캐릭터와 공간을 중심으로」
- 권지선, 「분단 현실 속에서의 이미지 - 영화를 보는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윤설희 외 3명, 「DMZ와 접경지대 - DMZ를 말하다」
- 박은혜 외 3명, 「탈북 문학 변모 양상」
- 박덕규, 「한국문학과 마이너리티 - 탈북 소재 문학을 중심으로」

이명원, 「‘사회적약자’ 로서의 청년담론의 지형 - 한국과 일본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오창은, 「1970년대 미군 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 지식인의 시선과 약소자의 감수성」
임옥규, 「김정은 시대의 국가와 북한여성」
김정수, 「북한 연극의 젠더정치」
김미진, 「북한 문학에서 ‘귀국사업’ 과 제일조선인 형상」

■ 2013. 12. 04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논문 및 비평문 공모전 결과 발표

- 수상자 : 박해울(대상,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권지선(우수상, 단국대 중국어과),
박은혜, 권현지, 박선우, 김나영(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김단비, 김현영, 양희우, 윤설희(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 2013. 10. 10~2013. 11. 1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논문 및 비평문 공모전 시행

■ 2013. 11. 15

2013 미래, 창조, 통합을 위한 중점연구소 합동성과발표회 참석

- 참석자 : 김수복(연구소장), 배인교(연구교수), 홍지석(연구교수),
임옥규(연구교수), 김미진(연구교수), 황희정(보조연구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 2013. 10. 10~2013. 11.1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논문 및 비평문 공모전 시행

■ 2013. 09. 0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초청 강사 : 한정미(하나원 주무관)
- 강연 주제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장소 : 예술관 B동

■ 2013. 06.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5집 발간

- 수록논문 : 구혜숙, 「이시영 시 연구」
김미나, 「매체 간 특성에 따른 변용 실제 연구」
김정수, 「김정은 단독 통치 시기 문화예술의 특징」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신정아, 「시대상에서 살펴본 소파문학의 형성과정」
임몽, 「在滿朝鮮人小説中農家女人命運的形象化研究」
진려, 「中韓古典文學妓女形象分析」

■ 2013. 06. 23~2013. 06.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2단계 2년차 해외자료수집

— 장소 : 일본 오사카 한인타운 / 도쿄 <조선장학회>, <동경외국어대학교>

■ 2013. 06. 25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3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場所와 治癒>

— 장소 :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쓰루하시 코리안타운 내 마니무라 세미나실

— 발표 : 정갑수, 「원 코리아 페스티벌의 역사와 재일동포」

김희정, 「소통과 치유,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 원코리아페스티벌」

문경수, 「전후 일본 사회의 변화와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

최수웅, 「마이너리티 이야기의 가치 - 가네시로 가즈키의 ‘더 좀비스’ 시리즈」

김미진, 「재일조선인 가족서사와 집단기억의 재현 - 양영희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정수, 「북한의 연극외교 - 공감과 결속」

임옥규, 「남북 역사소설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통한 한반도 심상지도 구상방안 기초 연구」

Gilbert Han, 「물밥」 외 1편

■ 2013. 05. 08

한국연구재단 선정 <2012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1단계 성과 보고 및 2단계 진입

— 연구책임자 : 임옥규 연구교수

■ 2013. 05. 08

한국연구재단 선정 <2013년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 최종 선정

— 연구책임자 : 홍지석 연구교수

* 2013년 이전 연혁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홈페이지(dkcti.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문화기술』 제34호 심사 경위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문화기술』 제34호는 2022년 12월 30일일 마감일에서 마감 기한을 연장해 2023년 1월 30일 최종적으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 일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 완료했으며, 2023년 2월 27일 모든 투고논문의 심사를 마감하였습니다. 엄밀한 검증을 위하여 심사 이후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 및 자체평가를 거쳐 2023년 2월 28일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투고된 논문은 모두 4편이며, 편집위원회는 1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2편의 논문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투고자에게 심사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 결과를 얻은 투고자에게 심사의견과 더불어 수정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수정사항을 이행하고 수정 및 보충 작업을 거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절차에 거쳐 2편의 옥고를 게재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호에 게재된 논문은 총 3편이고 논문 게재율은 50%(2/4)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와 연구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35호 원고 모집

『한국문화기술』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로서, 문화예술·문화이론·매체이론·문화산업론·통일문화예술론 등을 연구하고 창작과 실천의 결합과 학제간 교류, 국제학으로서 문화예술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기술』은 제35호(2023년 8월 발간 예정)에 실릴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모집분야 : 문예창작·문화기술·문화예술·통일문화 전반에 관련된 모든 분야
2. 제출서류 :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된 원고
 - * 논문의 체제는 ‘국문제목-영문제목-성명(소속 및 지위)-목차-국문요약-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주제어’와 같이 작성
 - * 심사용 원고는 필자를 확인할 수 없게 개인정보(저자명, 소속 등)를 삭제한 상태에서 탑재 바랍니다.
3.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제출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5. 제출방법 : 『한국문화기술』 제35호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2.0)을 활용해 논문 원고를 받습니다.
(한국문화기술 JAMS2.0 홈페이지 : <https://dkcti.jams.or.kr>)
6. 심사비 : 심사비 6만 원(논문 투고 및 접수 완료 확인 후 심사비 입금)
7. 게재료 : 게재료 10만 원/연구비 수혜 논문 20만 원(게재 확정 후 추후 입금)
 - * 게재 시 게재지면 기준 25면 이상의 논문은 1면당 1만 원의 게재료가 추가됩니다. (게재지면 1면 : 원고지 약 5.5매)
8.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557-276431 / 예금주 :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9. 논문심사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 아래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2.0)을 통하여 개별 공지함.
 - * 작성 지침 및 집필요령 확인을 포함하여 자세한 논문 투고 절차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JAMS2.0 홈페이지(<https://dkcti.jams.or.kr>)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오니,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 후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JAMS2.0(<https://dkcti.jams.or.kr>)에 반드시 먼저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에 타 학회나 학술지의 논문투고 시스템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가입승인을 해 드립니다. 혹여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담당자 (최송희 010-8011-2040 kcti@dankook.ac.kr)에게 문의바랍니다.

* 직전 『한국문화기술』 제34호 논문 게재자는 이번 제35호에 연속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041-550-3798

담당 편집 간사 : 최송희 010-8011-2040 kcti@dankook.ac.kr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D 206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한국문화기술』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소 장 : 박덕규(단국대)
위 원 장 : 최수웅(단국대)
위 원 : 나소정(단국대)
이은주(단국대)
신정아(단국대)
김효숙(중앙대)
편집간사 : 최송희(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한국문화기술 제18권 제2호 통권 제34호

The Journal of Korea Culture Technology

2023년 2월 28일 인쇄

2023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 박덕규

발행처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화: 041-550-3798 / e-mail: kcti@dankook.ac.kr)

편집·제작 / 한국학술정보(주)

한국문화기술연구소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D동 206호

홈페이지 / <http://dkcti.org>

JAMS / <http://dkcti.jams.or.kr>